



정답과 해설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1] 문학의 가치

작품 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p. 11

01 ② 02 ③ 03 ③ 04 예시 답안 화자는 ‘복숭아 나무’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치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대상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01 이 시에서는 청각적 심상이 대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인식을 통해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 등에서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화하고 있다.
- ⑤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서 도치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02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은 화자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감하게 된 복숭아나무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의 소망이 복숭아나무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며 거리감을 느끼다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천의 빛깔’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지니고 있던 편견에서 벗어나 대상이 지닌 본질, 대상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된 것을 나타낸다. 화자가 가진 선입견만으로 판단한 타인의 모습에 해당하는 것은 ‘흰꽃과 분홍꽃’이다.

04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대상과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대상과 가까워졌다는 점이다.

채점 기준	배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적절한 시구를 인용하여 서술한 경우	5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적절하게 서술했으나 시구의 인용이 미흡한 경우	3점
화자의 태도에 대한 설명이나 변화에 대한 비교가 미흡한 경우	1점

작품 2 성난 풀잎

p. 17

01 ④ 02 ⑤ 03 예시 답안 ‘성난 풀잎’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해치는 태도를 질책하는 존재로, 글쓴이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다.

01 이 글의 ‘한갓 잡풀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그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에서는 설의법을 사용하여 잡풀에게도 느낌이 있고, 자신을 해하려는 대상에 대항하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02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 같다.’라고 하지만 바로 이어서 이에 대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의 본성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이 글은 인간 중심적 사고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해치는 인간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경고하고 질책하는 존재인 ‘성난 풀잎’을 소재로 하여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기 위해 쓴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성난 풀잎’의 의미를 바탕으로 글을 쓴 의도를 서술한 경우	5점
글을 쓴 의도만 서술한 경우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01 ② 02 ⑤ 03 예시 답안 김 주사는 인정이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으로, 어릴 적 고향 장날의 추억과 시골 장날에 만난 사람들과의 정 때문에 장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 04 ④ 05 예시 답안 ㉓는 김 주사가 새로운 사건을 겪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01 이 글은 '김 주사'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 인물의 말과 행동, 심리, 인물의 처지와 상황을 해학적으로 그리며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⑤ 이 소설은 인물의 윤리적 결함에 따른 풍자가 주목적이지 아니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대상에 대해 연민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02 이 글은 시대의 흐름과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김 주사의 일화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와 이에 적응한 사람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해 소외된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는데, ㉓ '이동수'는 전자에, ㉔ '사람들'은 후자에 해당한다.

03 이 글에서 김 주사는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전 세대의 전형으로 사람 간의 정이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다.

채점 기준	배점
인물의 성격과 장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인물의 성격과 장사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일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4점
두 가지 중 하나만 정확히 서술한 경우	2점

04 '사내는 후줄근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는데 ~ 한기를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김 주사가 옷을 팔려고 한 인물은 김 주사처럼 빈곤한 처지에 있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05 ㉓ '사업'은 김 주사의 장사 품목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로, 이는 40대의 사내와 물품 판매로 인한 신경전을 벌이는 사건의 계기가 된다.

01 ④ 02 ④ 03 ⑤ 04 저녁 05 ④ 06 ① 07 ③ 08 예시 답안 이 작품의 '나'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고향의 한 샘물을 네 집의 이웃이 나누어 먹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웃 간의 배려와 훈훈한 정, 성숙한 의식이 있는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09 ⑤ 10 ③ 11 ①

01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에서 화자는 대상의 본질적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고 안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거리감으로 인해 멀리서 보고 알게 되었으며 이로써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변화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02 이 시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대상인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자 한 시이다.

②, ③ 이 시는 '-습니다', '-입니다'와 같은 종결 어미를 활용한 경어체와 독백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심경과 깨달음을 차분히 고백하고 있다.

⑤ 이 시의 화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숭아나무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

03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화자가 대상을 이해하기 전 편견으로 인해 복숭아나무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공간이다. '그 복숭아나무 그늘'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와 교감을 나누는 곳으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04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진 조화로운 시간,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을 의미하는 시어는 '저녁'이다.

05 이 글에서는 '잠풀'에 대한 '농부'와 '나'의 관점이 드러나 있는데, 인간 중심적 관점과 인간도 자연을 초월한 예외적 존재가 아닌 자연의 일부라는 생태주의적 관점의 대조를 통해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하여 성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은 서술자인 ‘나’의 경험과 사색에 대한 서술이 나타날 뿐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이 작품은 자연의 본성과 관련된 말을 인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반어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③ 이 작품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인용이 나타나 있지만 이는 자연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일 뿐 이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이 작품은 ‘나’가 자신의 체험과 사색을 서술하고 있을 뿐 의인화된 서술자는 나타나 있지 않다.

06 ㉔는 자연의 본성에 대한 옛사람들의 인식을 소개하면서 든 예로, 자연 그대로 행해지는 일들을 나타낸 것이다. 글쓴이는 ㉔와 같은 자연의 섭리가 인간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으며, 자연은 인간의 힘을 더하지 않은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그냥 있는 것이 제 본성이라고 하였다.

07 ㉔은 하늘은 대상을 구분 없이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음.’을 의미하는 ‘공평무사(公平無私)’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구밀복검(口蜜腹劍):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을 이르는 말.
- ②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 ④ 식자우환(識字憂患):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을 사게 됨.
- ⑤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히 여기는 마음.

08 이 글의 글쓴이는 풀독이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기〉의 화자는 한 샘물을 네 집의 이웃이 나누어 먹었던 경험을 통해 이웃 간에 배려하며 정을 나누는 공동체적 삶의 태도를 추구하고 있다.

09 이 소설은 ‘김 주사’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한다기보다 김 주사와 사내 사이의 신경전과 같이 김 주사가 겪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할배요, 오늘 장사가 영 파리만 날리는 게 시원찮은갑네요. 우동으로 점심 때올라가는데 같이 드실랍니까?”에

서와 같이 사투리를 사용하여 인물을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② ‘사내는 후줄근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는데 안에 입은 셔츠는 헐렁하고 얇은 와이셔츠였고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한기를 느끼고 있는 게 분명했다.’에서와 같이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40대의 사내가 김 주사처럼 빈곤한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김 주사가 장사의 품목을 바꾸어 싸구려 의류를 팔게 된 사건과 그에 관한 생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서사의 전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10 이 소설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김 주사의 모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㉔)와 김 주사와 함께 나이가 들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외되었지만 인정이 많은 사람들(㉔)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11 ‘네 증조할부지 보고 와서 장사를 해 보래라.’는 경직된 상황을 풀기 위한 농담이 아니라 자신과 달리 장사가 잘되는 ‘이동수’에 대해 괜한 반감을 드러내며 통명스럽게 반응한 것이다.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작품 1 길

p. 37

- 01 ⑤ 02 ③ 03 ③ 04 예시 답안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와 달리 기러기는 공중의 갈 길이 있는 존재로, 갈 곳 없는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01 이 시는 ‘오늘은 /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 // 산으로 올라갈까 / 들로 갈까 /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요.’에서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여 갈 곳 없는 화자의 처지로 인한 나그네의 비애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가마귀 가악가와 울며 새었소.’에서는 ‘가마귀’라는 객관적 상관물에 화자가 느끼는 비애의 감정을 이입하여 마치 ‘가마귀’가 슬피 우는 것처럼 표현하는 감정 이입이 사용되고 있다. ③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에서도 화자의 감

정을 ‘풀빛’에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서러운’은 화자의 정서가 표출된 시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
다’에서는 역설법이 쓰였다.
- ②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
는 구름’에서는 은유법이 쓰였다.
- ⑤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 성자처럼
빨발에 고개를 숙이고’에서는 직유법이 쓰였다.

03 ‘산’은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가 현재 어
디로도 갈 곳이 없는 슬픈 상황임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산’은 일제 강점기에 갈 곳을 잃어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리운 고향의 의미는 아니다.

04 ‘기러기’는 화자와 달리 공중의 길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존재로, 방향성을 상실하고 열십자 복판에 서서 방황하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화자와 기러기
의 대조적 처지는 갈 곳을 잃고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의
절망감을 더욱 강하게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채점 기준	배점
화자와 ‘기러기’의 대조적 처지와 ‘기러기’의 역할을 모 두 서술한 경우	5점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작품 2 **엄마의 말뚝 2**

p. 43

- 01** ④ **02** 예시 답안 1인칭 주인공 시점, 소설 속 주인공 ‘나’
에 의해 이야기가 서술되며, ‘나’의 시점에서 어머니를 관찰하며
생각한 점과 자신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러한 시점은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독자는 인물이
겪는 사건과 아픔에 공감하기 쉽다. **03** ③ **04** ④
05 ‘아들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상처와
한’을 의미한다.(한국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한) **06** ⑤
07 ① **08** ③ **09** ① **10** 예시 답안 ‘그 짓’은 오빠
에게 했던 방식과 같이 화장하여 그 뺨가루를 개풍군이 보이는
강화도에서 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는 죽음을 통해서라도
분단이라는 괴물과 맞서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지’를 거역할 수
없기에 어머니의 뜻에 따르려 한다.

01 다리 수술 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는 수술의 후유증
으로 환각 증세가 나타나 한국 전쟁 당시 아들이 ‘인민군
군관’에 의해 총에 맞아 죽는 상황을 겪고 있다. ‘나’는 어
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는 것이 저
승 사자가 아닌 ‘인민군 군관’임을 알아챈다. ‘차라리 저승
의 사자를 보시는 게 더 나았을 것’은 어머니에게 아들
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어머니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두
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에 공포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 주
는 것은 아니다.

02 이 소설의 서술자는 1인칭 주인공 ‘나’로, 어머니의 수술
후 벌어지는 일과 그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
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글의 시점과 그 특징 및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글의 시점과 그 특징 및 효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하 였으나 일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3점
글의 시점과 그 특징 및 효과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 한 경우	2점

03 이 소설은 시간의 순서가 ‘현재-과거-현재’로,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구성인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오빠의 죽음과 관련된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인물이 느끼
는 고통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04 보위부 군관이 작별하러 왔을 때 총을 겨누며 진실을 말하
라고 협박하고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보위부 군관에게
매달렸으므로 오빠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05 제시된 (나), (다)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인해 과거 한국 전
쟁 시 인민군 군관에 의해 아들이 죽음을 맞은 사건을 다
시 겪는 장면이고, 말뚝의 속성은 ‘땅에 두드려 깊이 박힌
것’이자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므
로, 제시된 (나), (다)와 <조건>을 바탕으로 할 때 ‘엄마의
말뚝’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아들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상처와 한’이라고 볼 수 있다.

06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지만, 아들의 한을 덜
어 주기 위해 삶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있지는 않다. 어

머니는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여 북쪽이 보이는 강화 땅에서 뿌려 달라고 함으로써 분단과 전쟁이라는 괴물에 맞서 싸우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07**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나’와 어머니의 한은 완전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다. 다만, 비애에 빠져 현실의 삶을 등한시할 수 없기에 그 상처를 덮은 채 살아가는 것이다.
- 08** 오빠의 시신을 옮겨 가매장하고 다시 화장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전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 09** 어머니는 전쟁과 분단이라는 비극에 꺾이지 않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인물이다. 어머니가 오빠의 시체를 화장한 것은 공포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나마 아들을 고향에 보내고자 한 어머니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다.
- 10** 어머니에게 있어 죽음은 분단이라는 괴물과 맞서는 또 다른 방식이기에 어머니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돼 있다. 그렇기에 ‘나’는 어머니의 결정을 쉽게 거스를 수 없다.

채점 기준	배점
‘그 짓’의 의미와 ‘어머니의 의지’가 드러나도록 서술한 경우	5점
‘그 짓’의 의미와 ‘어머니의 의지’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일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3점
두 가지 중 하나만 잘 드러나도록 서술한 경우	1점

작품 3 우리들의 블루스

p. 55

01 ② **02** ④ **03** ② **04** 예시 답안 정준은 영희가 영옥과 떨어져 지내면서 느꼈을 외로움, 영옥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져서 눈물을 흘린 것이다. **05** ④ **06** ④

- 01** 이 작품은 드라마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대본으로 극 갈래의 작품이다. 극 갈래는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02** S# 6에서는 밤에 마당의 평상에 나란히 누워서 밤하늘의 별자리 이름을 알려 주는 장면이므로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03 영희가 술을 함께 마시는 대상은 영옥, 장 선생님, 친구 진숙 등으로 영희와 친밀해진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정준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영희가 정준에 대해 친밀감과 호감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04 정준은 영희의 말과 그림을 통해 영희가 느꼈을 외로움과 그리움의 감정들에 공감하고 있다.

05 영희가 그린 ‘그림’은 등장인물의 내면과 감정을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 상처의 치유’라는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시청자들로 하여금 드라마에 몰입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그림’이 작품의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내거나 조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영희, 영옥 서로를 사랑하다’를 통해 영옥과 영희의 관계에 대한 영희의 기대와 바람을, ‘언니 영희, 내 동생 영옥을 사랑하다’를 통해 영옥에 대한 영희의 사랑을, 이 그림들을 그리며 살아온 영희를 통해 영옥에 대한 영희의 그리움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옥과 정준 사랑을 하다’에는 정준에 대한 영옥의 감정을 발견한 영희의 생각이 담겨져 있을 뿐, 영옥과 정준의 사랑에 대한 영희의 염려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작품 4 파초

p. 67

01 ④ **02** ⑤ **03** ㉠ 폭염 ㉡ 비 **04** ④ **05** ⑤ **06** ⑤ **07** ③ **08** 예시 답안 파초를 팔지 않고 계속 키르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파초를 팔라는 ‘앞집 사람’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기 위함이다.

01 이 수필은 파초에 대한 글쓴이의 사랑이 담긴 글로, 글쓴이는 앞집 사람이 파초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해도 파초가 죽을 때까지 키우고자 하고 있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자연물인 ‘파초’와 교감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감상하는 심미적 감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자연물과 교감하며 돈보다 정서적 아름다움과 심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03 일반적으로 ‘폭염’과 ‘비’는 인간과 자연에 있어 모두 부정적이거나 시련에 해당하는 요소로 생각되지만, 글쓴이는 ‘폭염’과 ‘비’가 오히려 파초가 지닌 매력을 더 끌어낸다고 생각한다. 이는 글쓴이의 개성적 발상에 해당한다.

04 ㉠는 파초의 옆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시원함을 준다는 의미로, 글쓴이가 파초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는 글쓴이가 파초에 대해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05 이 수필은 대상(파초)과 관련한 일화에 글쓴이의 가치관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06 ㉡에서는 대상의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앞집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파초를 정서적·심미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으므로 앞집 사람과 파초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② 앞집 사람은 파초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통해 정서적 아름다움을 취하는 글쓴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파초를 도구적 가치로만 바라보고 있다.

③ 글쓴이는 자신의 방 앞에서 자라고 있는 파초와 교감하며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④ 이해타산적 사고가 보편적인 시대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므로 앞집 사람의 행동도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07 앞집 사람은 파초가 죽기 전에 오 원쯤 받고 팔라고 당부한다. 이는 파초와의 관계나 파초에 대한 애정보다는 필요와 쓰임에 따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셈을 하는 이해타산적 관점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④, ⑤ 파초가 지닌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는 인물은 앞집 사람이고 파초와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은 글쓴이인 ‘나’이다.

08 ‘옴’은 식물이 냉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책으로, 앞집 사람에게 옴이나 깊게 파 달라고 한 것은 파초를 계속 기르겠다는 글쓴이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은 앞집 사람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④ **06** ④

07 예시 답안 이 작품은 ‘어머니’의 ‘고통’을 소재로 하여 ‘전쟁의 상처와 비극, 그러한 비극의 상처를 넘어선 통일의 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 **08** ⑤ **09** ⑤ **10** 예시 답안 이

글은 극 갈래로 서술자가 없어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보기〉는 서사 갈래로 서술자가 있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11** ③ **12** ③

13 ③ **14** 예시 답안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01 이 시에서는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까마귀의 울음이나 갈 곳 없는 화자의 처지와 선명히 대비되는 기러기의 비행 등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한 종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시켜 나타내는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02 이 시의 ‘가왁가왁’은 음성 상징어로, 음악성을 부여하고 있다. 소리를 흉내 낸 음성 상징어는 같은 소리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는 특성이 있어 운율 형성에 기여한다. 〈보기〉에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2연과 〈보기〉의 1, 2연은 한 행에 1음보(한 마디)만 배열하여 천천히 읽히며 이를 통해 화자의 망설임은 심정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⑤ 이 시의 ‘기러기’와 〈보기〉의 ‘까마귀’, ‘강물’은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03 ‘기러기’가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만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자 절망감, 비애감이 들게 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을 통해 정서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어머니를 관찰하는 ‘나’의 시선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무악재 고개, 강화도 등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갈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05 「엄마의 말뚝 2」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볼 때, 어머니는 자신의 사후에 화장하여 고향 땅을 향해 뿌려 줄 것을 부

탁하는데, 이는 분단이라는 상황에 맞서고자 하는 어머니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④ ‘죽어서라도 묘지에 묻히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6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전쟁과 분단의 비극과 당당히 맞서 싸우고자 하는 한 개인의 강한 의지를 의미한다.

07 이 소설은 작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어머니의 현재 진행 중인 참담한 고통’을 소재로 하여 전쟁의 상처와 비극, 그러한 비극의 상처를 넘어서 통일의 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다.

08 화면 밖에서 인물의 목소리만 삽입하는 ‘E.(효과음)’를 통해 인물이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삽입하여 인물들이 지닌 심리나 후일의 사건들을 시청자가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09 영옥은 영희가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영희의 그림 실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10 극 갈래와 서사 갈래의 차이는 서술자의 유무이다. 극 갈래는 서술자가 없으므로 대사와 행동으로 인물의 심리를 보여 준다.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있으므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난다.

채점 기준	배점
각 갈래별 특징에 따른 서술자의 유무와 인물 심리 제시 방법의 차이를 정확하게 밝혀 쓴 경우	5점
각 갈래별 특징에 따른 서술자의 유무와 인물 심리 제시 방법의 차이 중 하나만 밝혀 정확하게 쓴 경우	3점
각 갈래별 특징에 따른 서술자의 유무와 인물 심리 제시 방법의 차이 중 하나만 밝혀 썼으나 미흡한 경우	1점

11 이 작품은 글쓴이의 일상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해당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글로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담으므로 주관적인 성격을 띤다.

12 (나)는 시간의 흐름을 바탕으로 대상인 ‘난초’에 대한 글쓴이의 심리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13 글쓴이는 뜰에 내놓은 난초에 집착하며 허둥지둥 돌아와 늘어진 잎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 일을 통해 글쓴이는 깨달음을 얻고 난초를 남에게 줌으로써 해방감을 느낀다.

14 역설은 표면상으로는 이치에 어긋나는 듯하나 그 속에 진리를 담는 방법으로 모순되는 사물이나 내용을 연결시켜 신선한 느낌을 주고 의미를 강조한다. 이러한 역설이 쓰인 문장은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와 ‘아무 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이다.

대단원 평가 문제

p. 85

01 ③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예시 답안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선입견에서 벗어나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한다. 07 ④ 08 ⑤ 09 ③

10 ② 11 ③ 12 ① 13 ③ 14 ⑤

15 예시 답안 (나)는 파초를 기른 경험을 통해 이해타산보다는 대상과의 관계와 본질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다)는 말을 빌려 탄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은 단지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끌어내고 있다.

01 (가)와 (다)는 특정 대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가)는 ‘복숭아나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다)는 자연의 본성에 대한 사색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나)에서만 나타난다.
- ② 계절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나타난다. (가)와 (나) 모두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④ (나)와 (다) 모두 자연을 인간이 본받을 대상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다.
- ⑤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작품은 (다)로, ‘잡풀’에 대한 ‘농부’와 ‘나’의 관점을 통해 인간 중심적 관점과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난 관점이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02 (다)에서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글쓴이의 개성적 발상과 자연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사고방식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드러나지만,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생각은 나타나 있지 않다.

03 (나)에서는 민요의 전통적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4음보의 율격이 아닌, 3음보의 율격을 사용하고 있다.

04 (다)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경계하며 자연의 본성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자연의 본성'은 인위적,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배제된 자연 그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의미한다.

05 (가)는 '복숭아나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를 통해 관계 맺음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은 화자가 대상의 참모습을 오랜 시간이 걸려 마침내 이해하게 된 지점이다.

06 (다)의 '나'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생태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의 '나'는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점, 외형보다는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보기>의 손님에게 말해 줄 수 있다.

07 (가)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나)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08 (가)는 인물의 말과 행동, 상황 등을 통해 웃음이 유발되지만, 풍자가 아닌 해학에 의한 웃음이 유발되고 있다. (나)는 풍자의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09 '혼자 남은 티샤쓰가 외로와 외로워서 못 살제.'는 김 주사의 능청스러운 말로 웃음을 유발한다. 또한 김 주사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고 허술한 면이 있는 인물로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노력하는 성격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간이 쿵알만한'은 서술자가 김 주사의 성격을 직접 제시한 것이다.
- ② 손님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김 주사가 나룻의 장사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 ⑤ '곧 닳아 없어져 버릴 듯 나달거리는 오천 원짜리 한 장'은 사내의 형편이 썩 좋지 않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10 (가)에서는 인물의 상상 장면과 현실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고 있지 않다.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1 (나)의 ㉠은 어머니가 분단이라는 비극에 대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서술자의 우려는 드러나 있지 않다.

12 '흰 철쭉'은 고향과 친정어머니를 상징하는 소재로, 아주머니의 그리움을 달래는 역할을 한다.

13 (다)의 '내 이에 느낀 바 있어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혀 본다.'에서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직접 드러나 있다. (나)에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14 (다)는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에 대한 올바른 관념에 관해 쓴 '설(說)'이다. 설의 경우 갈래적 특성상 마지막에 해당 글을 쓴 목적이나 의도를 밝힌다.

오답 풀이

- ① 소유에 대한 바른 관념을 언급하는 것은 (다)이다.
- ② (다)는 소유에 대한 올바른 관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나)는 물질적 가치,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가치의 중요성을, (다)는 소유의 본질을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 ④ 글쓴이가 깨달은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이다.

15 (나)는 파초를 기른 경험과 앞집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다)는 말을 빌려 탄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끌어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나)와 (다)에 나타난 깨달음의 기반이 된 경험과 해당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각각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기술한 경우	5점
(나)와 (다) 중 한 작품에 나타난 경험과 깨달음을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기술한 경우	3점
두 작품 모두에 나타난 경험과 깨달음을 기술하였으나 어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1점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 1 속미인곡

p. 97

- 01 ⑤ 02 ② 03 ④ 04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었디하야 니별(離別)하고 05 ① 06 ⑤
07 예시 답안 '낙월'은 멀리서 임을 지켜만 보는 소극적 사랑을 의미하지만, '구준비'는 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적극적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01 '물 ㄱ툼 얼굴이 ~ 줌은 었디 자시논고'와 같이 갑녀의 질문에 대한 을녀의 대답 안에서 의문형 문장이 나열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 안부를 염려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어하니', '하눌히라 원망하며 사롭이라 허물하랴', '춘한 고열(春寒苦熱)은 었디하야 디내시며 추일 동턴(秋日冬天)은 뉘라서 피섯논고' 등과 같은 대구의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하눌히라 원망하며 사롭이라 허물하랴'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책하는 심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물 ㄱ툼 얼굴'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임의 안부를 걱정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설워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라는 영탄적 어조를 통해 임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임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처지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02 [A]에서 화자는 임이 화자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변한 이유를 찾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자는 자신의 죄가 산갈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하다가 중국에는 조물주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적 사고를 보인다.

오답 풀이

- ①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얍죽 혼가마논'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외양과 행동이 임에게 사랑받게 된 계기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를 통해 화자는 자신을 받기는 임의 태도에 대해서 믿으면서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 03 ③은 임과 헤어진 후 자책하고 체념하는 을녀의 모습을 보며 갑녀가 위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을녀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부정하며 성찰을 유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4 궁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은 하늘 위에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곳이다. 화자가 이곳을 떠나 인간 세상으로 왔다는 설정은 정철의 가사에 종종 나타나는 '적강 모티프'와 관련이 있다.

- 05 '구름은ㄱ니와 안개논 므스일고 /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었디 보며'에서 '구름'과 '안개'가 '일월'을 가려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일월'은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임(선조)'를 상징한다면, '구름'과 '안개'는 이를 '방해하는 존재(동인 세력)'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벼람'이아 물결'이아 어둥정 된더이'고'에서 '벼람'과 '물결'도 '구름'과 '안개'와 같은 대상을 상징한다. 이처럼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방해 세력으로 인해 임의 소식을 알 길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06 꿈은 본래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에 임과의 만남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 화자는 임과의 짧은 만남에 대한 안타까움을, 잠을 깨운 닭에 대한 원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7 '낙월'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시간적으로 밤에만 만날 수 있다. 이와 달리 '구준비'는 공간적으로 대상 가까이 갈 수 있고, 시간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채점 기준	배점
'낙월'과 '구준비'의 함축적 의미가 적절하게 드러나 있음.	5점
'낙월'과 '구준비' 중 어느 하나의 함축적 의미만 적절하게 드러나 있음.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 01 ③ 02 ③ 03 예시 답안 아들의 앞날을 결정하는 일이 끝날 때까지 신중을 기하고 행동을 조심하려 했기 때문이다.
 04 ③ 05 ⑤ 06 예시 답안 자기가 그토록 동경했던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07 ③ 08 ⑤ 09 ⑤
 10 ④ 11 ⑤ 12 ③ 13 ④ 14 ③ 15 ⑤
 16 예시 답안 서울에 홀로 남겨진 아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였다.

- 01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까지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부분에서 인물 간의 대화는 드러나 있지만, 이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② 이 소설의 서술자는 작중 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에서 작중 인물들의 언행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로 작중 인물인 ‘소년(창수)’의 시선에 따라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02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르지 못한 화신 상회에’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소년의 아버지는 이전에 서울에 와 본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단순히 아들과 함께 서울에 놀러 온 것이라면, 아들의 바람대로 화신상회 안에 들어갔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장래를 위해 서울에 데리고 와 한약국에 맡기려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신중을 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소년(창수)을 서울에 데려온 목적과 아버지의 심리를 적절하게 파악하여 서술함.	5점
‘소년(창수)을 서울에 데려온 목적’과 ‘아버지의 심리’ 중 어느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 04 이 부분에서는 창수의 눈에 비친 천변 풍경의 모습이 영화의 카메라가 풍경을 훑고 지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 즉, 특별한 인과 관계 없이 창수의 시선을 따라가며 다양한 장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심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관찰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위와 장면들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말줄임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ㄴ. 이 부분에서는 창수가 관찰한 천변의 풍경이 제시되고 있다. 장면이 빈번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 양상을 속도감 있게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 05 서울 생활을 동경해 왔던 창수의 눈에 비친 천변의 풍경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은 넓은 곳이기 때문에 천변에서 본 풍경말고도 아직 볼 것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기대감을 품고 있다.

- 06 ‘짜정’은 거지를 뜻한다. 창수가 거지들도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 진뎌’라는 내용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만큼 창수가 서울 생활을 동경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7 창수는 서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은 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혼자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될 것에 겁이 난다. 그래서 아버지와 서울 구경만 하다가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다. 따라서 제시된 부분에서 창수가 서울 생활에 기대를 품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8 창수가 처음 온 곳에서 담배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알 리가 없다. 그런데도 담배 파는 데를 아느냐고 묻는 주인 영감의 질문에 창수는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담배 파는 데를 모른다고 하기 싫은 마음과 주인 영감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09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가 앉아, ~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싶어’라는 내용을 통해 이발소 아이가 창수를 계속 관찰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와 ㉡는 모두 이러한 관찰의 결과에서 나온 질문으로, 이발소 아이가 창수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 10 창수가 담배 심부름을 하면서 거스름돈을 덜 받아온 것은 십 전과 오 전의 동전 크기가 비슷했고, 첫 심부름이라 긴장한 탓에 창수가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과 시골의 셈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은 아니다.

11 ‘마침 무엇을 사러 나온 칠성 아범’이라는 내용을 참고할 때, 창수가 담배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장면을 칠성 아범이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게 주인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일과 관련이 없는 칠성 아범을 끌어들인 셈이다.

12 창수는 시골에서도 담배 심부름을 종종 했었기 때문에 담배 심부름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에 와 주인 영감의 첫 심부름에서 거스름돈을 덜 받아오는 실수를 한 것에 무척 당황하고 있다.

13 창수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하소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이끌고 시골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창수에게 그러한 말을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함께 시골로 돌아가자는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거절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 어제까지의 자기가 자꾸 뉘우쳐졌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이제 혼잣말이 이곳에서 ~ 문득, 끝없는 외로움과 또 애탐을, 그는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아버지에게 하소하면, 아버지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의 편’일 것으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이제 혼잣말이 이곳에서 어떻게 지내 갈 것인가 — 문득, 끝없는 외로움과 또 애탐을, 그는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아버지는 창수에게 주인어른 말대로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몸 성히 잘 있으라는 당부를 한다. 이러한 당부에는 아들 창수가 한약국에서 열심히 일을 배우면서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바람이 담겨 있다.

15 ㉔는 바라던 일(덜 받은 거스름돈을 받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 속상하고 난감한 심정에서 나온 결과이고, ㉖는 아버지 없이 혼자 서울 생활을 해 나갈 것에 대한 걱정에서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㉔와 ㉖ 모두 어린 창수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6 아버지는 어린 아들 혼자 서울에 두고 시골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심정적으로는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들이 서울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채점 기준	배점
창수의 상황과 관련지어 아버지의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창수의 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아버지의 의도만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소단원 평가 문제

p. 118

- 01 ① 02 ③ 03 ⑤ 04 예시 답안 현실에서 임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죽어서라도 임을 보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05 ③ 06 ③ 07 ① 08 ⑤
09 ② 10 ③ 11 예시 답안 창수가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며 오 전을 더 달라고 요구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다며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01 ‘편홍실 적 몇 날일고’, ‘뉘라셔 뵈섯노고’, ‘네와 궂티 세시논가’ 등의 의문형 문장을 통해 임의 안부를 염려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반어와 역설을 사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④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판하는 풍자적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춘한 고열(春寒苦熱)’과 ‘추일 동턴(秋日冬天)’과 같이 계절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는 계절의 흐름을 말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화자의 감정 변화도 나타나 있지 않다.

02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을녀가 임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쁘려나 아자 흥니’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② 집에 있으면서 임의 소식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에서 혹시나 임의 소식을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산으로

이동한 것이다.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산과 물가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화자는 집에 돌아와 ‘반벽 청등(半壁靑燈)’을 보며 더욱 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⑤ 산에 올랐지만 구름과 안개 탓에 자신의 소망이 좌절되었다고 여긴 화자는 다시 물가로 장소를 옮겨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한다. 산에 간 목적과 물가에 간 목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03 ‘반벽 청등(半壁靑燈)’은 밤에라도 임이 자신이 있는 곳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걸어 둔 것이다. 하지만 임은 찾아오지 않고, 임의 소식조차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벽 청등(半壁靑燈)’은 화자의 외로움과 슬픔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04 을녀는 임을 만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차라리 죽어서 낙월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낙월이 되면 임이 있는 곳에 찾아가 임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을녀의 처지와 을녀의 바람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함.	5점
을녀의 처지와 을녀의 바람 중 어느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05 이 작품에서는 심표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창수의 눈에 비친 천변의 풍경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영화의 ‘카메라의 눈(camera-eye)’ 기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중 인물인 창수의 시선을 따라가며 천변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제시된 부분에서는 비속어가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ㄴ. 제시된 부분에서는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여 줄 만한 비유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06 ‘그곳에는 이미 옷을 낚지 않는 젊은이들이, ~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을 통해, 창수가 본 것은 젊은이들이 옷놀이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권투 연습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그렇게도 오고 싶어 마지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결코 그다지는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 ‘천변 풍경’이, ~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또 신기하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깍정이 떼들도, ~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7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를 통해, 창수가 빨래터에서 떠드는 소리조차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8 이 소설에서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중 인물인 ‘창수’의 입장에서, 창수가 경험한 것과 그러한 상황에서 창수가 느낀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09 [A]에서 창수는 거스름돈을 덜 받아온 것을 깨닫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다. 서울에 온 첫날 겪은 일이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난감해한다. 이러한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이다. ‘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吉凶禍福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③ ‘동병상련(同病相憐)’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④ ‘결초보은(結草報恩)’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와신상담(臥薪嘗膽)’은 불편한 쉼에 몸을 눕히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을 참고 견뎌 버림으로써 이르는 말이다.

10 주인 영감은 거스름돈을 잘못 받아온 것을 확인하고, 아직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창수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창수에 대한 답답함과 불쾌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11 창수는 '홍 서방'의 말에 따라 덜 받은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 반찬 가게에 찾아간다. 하지만 반찬 가게 주인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거스름돈을 받지 못한다. '부질없다'는 '대수롭지 아니하거나 쓸모가 없다.'를 뜻한다.

채점 기준	배점
창수의 요구와 가게 주인의 반응을 적절하게 서술함.	5점
창수의 요구와 가게 주인의 반응 중 어느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2]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작품 1 즐거운 편지

p. 123

01 ③ 02 ② 03 예시 답안 그대를 생각하는(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01 '설의적 표현'이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수사법이다. 이 시에서는 이러한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2연에서 '~을 믿는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② '그대', '진실로'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즐거운 편지'라는 제목처럼 편지의 느낌을 살리기 위하여 행 구분이 없는 줄글 형태로 구성하였다.
 ⑤ 1연에서 '그대를 생각함'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과 같은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02 ㉠이 퍼붓는 것은 그대를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대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 가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로 계절의 순환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그대를 향한 기다림(사랑)도 지속될 것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 03 '그대를 생각함'을 '사소한 일'이라고 한 것은 반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무척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현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의 특성만을 서술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작품 2 엃박자 D

p. 129

01 ① 02 ③ 03 예시 답안 합창단의 단장을 하고,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아 합창에 열의와 적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04 ③ 05 ⑤ 06 ② 07 예시 답안 엃박자(음치)도 그 나름의 음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08 ② 09 ① 10 예시 답안 과거 음치라는 이유로 엃박자 D가 립싱크를 강요받았을 때 침묵으로 동조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뜻이 담겨 있다.

- 01 축제 때 부를 합창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박치이자 음치인 엃박자 D의 노랫소리로 인해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시된 부분은 합창 연습을 하는 음악실만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장면의 빈번한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제시된 부분에서는 방언을 사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⑤ 시·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2 학생들이 모두 긴장하기 시작한 것은, 화가 난 '음악 선생'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학생을 찾아내기 위해 학생들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03 엃박자 D는 단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합창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 축제 때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며, 음악 선생의 지적에도 무대에 오르겠다는 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엿박자 D의 태도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엿박자 D의 태도를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04 이 작품은 작품 속 서술자 ‘나’가 중심인물인 ‘엿박자 D’와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시점을 취하고 있다.

05 엿박자 D가 심각한 음치이자 박치라는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보다는 엿박자 D라는 별명만 ‘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6 등장인물이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서 더 볼 더빙이 재미난 연주를 들려 주는데, 재채기를 하기 위해 찡그린 얼굴과 음악이 엿박자를 일으키며 재미를 준다. 이를 통해 ‘나’와 친구들은 엿박자에 대한 고정 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된다.

07 재채기를 하려는 표정과 음악이 엿박자가 나는 부분을 관객들이 오히려 더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통해서, 엿박자가 공연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기에 따라 공연의 재미를 더해 줄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엿박자(음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서술함.	5점
‘엿박자(음치)’와 관련한 새로운 인식 없이 재미만 강조하여 서술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08 ‘엿박자 D’는 공연을 통해 학창 시절 자신을 음치라고 놀렸던 친구들에게 다른 것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또 다른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차이’가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기보다는 각자가 지닌 개별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라는 주제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9 ‘나’는 공연이 시나리오와 다르게 진행되는 것에 당황하고 있다. ‘나’는 준비해 두었던 앙코르곡이 아닌 다른 음악 소

리가 들리자 당황하며 음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점검하려 한다.

10 ‘나’와 친구들은 음치들의 합창이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느끼며 음치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 ‘엿박자 D’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속죄하는 의미로 과거 그에게 강요되었던 립싱크를 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과거 사건과 관련지어 행동에 담긴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행동에 담긴 의미는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과거 사건과 관련짓지 못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소단원 평가 문제

p. 138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5 ③ 06 ②
 07 예시 답안 전체의 통일을 방해하는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외시키는 사회적인 폭력을 상징한다. 08 ⑤ 09 ②
 10 ④

01 이 시의 1연에서는 ‘그대를 생각함(사랑)’을 ‘사소한 일’, ‘사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사랑을 사소한 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해 보일 수 있어도 실은 무척 소중한 가치 있는 일임을 반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반어적 표현을 통해 ‘그대’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어순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대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연 현상에 빗대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의문형 어미를 사용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2 1연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그대를 생각함(사랑)’이 무척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든 곁에 있어 주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 2연에서는 ‘그대’를 향한 사랑을 기다림으로 승

화시켜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그대’를 기다리며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고백하고 있다.

03 ㉔은 외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 사랑에 수반되는 기다림의 고통과 시련, 그리움 등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04 ‘누군가 그즈음 가장 인기 있던 ~ 모두들 찬성했다.’를 통해 축제 때 부를 발라드 곡은 음악 선생이 아니라 합창단원 중 어떤 학생이 추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㉑ 음악 선생이 엿박자 D를 ‘단장’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엿박자 D가 합창단에서 단장을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㉒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고 하였는데, 엿박자 D로 인해 연습이 반복되면서 연습 시간이 길어졌다.
- ㉓ ‘우리는 노래를 정한 후 다시 자습에 몰두했다.’를 통해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합창이 아니라 자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 ㉔ ‘우리는 엿박자 D의 진면목을 처음 알게 됐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박치이자 음치였다.’를 통해 학생들이 연습을 시작하고서야 비로소 엿박자 D가 음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05 음악 선생은 음치인 엿박자 D에게 사퇴를 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엿박자 D에게 입만 병긱병긱하라고 강요하였다. 음치와 박치를 고쳐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㉑ “자, 자, 쉬운 노래니까 딱 한 번만 맞춰 보고 자습하자.”를 통해 합창 공연에 열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㉒ 전체 화음을 깨뜨리는 소리가 나오자 화를 내고, 그러한 소리를 내는 엿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할 만큼 다른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전체 화음을 깨뜨리는 소리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연습이 길어져 자습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음악 선생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7 엿박자 D가 자진 사퇴 권유를 거절하자 음악 선생은 엿박자 D에게 입만 병긱병긱하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다른

소리를 인정하지 않고 획일성만 추구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A]가 상징하는 바를 사회 문제로 확장하여 적절하게 서술함.	5점
[A]가 상징하는 바는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사회 문제로 확장하지 못함.	2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08 이 작품은 공연 기획자인 ‘나’가 고등학교 동창인 엿박자 D를 만나 함께 공연을 기획하면서 ‘다름’이 ‘틀림’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고정 관념을 버리게 되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09 이 작품은 음치이자 박치였던 엿박자 D를 통해 ‘다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음치가 전체 화음을 망가뜨린다는 고정 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음치도 활용하기에 따라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여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0 ‘나’와 친구들은 엿박자 D가 준비한 공연을 보며 과거에 음악 선생이 엿박자 D에게 입만 병긱병긱하게 한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들이 입만 병긱병긱으로써 그에 대한 미안함과 존중의 마음을 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문학과 매체, 작품의 재구성·창작

작품 1 남한산성

p. 143

01 ⑤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예시 답안 김류는 왕에게 중론을 묻지 말고 왕의 뜻을 말씀해 주면 받들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01 이 작품은 영화 상영을 위한 대본인 시나리오이며 극 갈래에 해당한다. 극 갈래는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오답 풀이

③ 희곡도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극 갈래에 해당하지만,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만큼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 02** 칸에게 문서를 보내는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최명길과 김상헌의 말을 들으며 인조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최명길과 김상헌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인조는 특별히 자신의 생각을 밝히거나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② 인조는 신하들의 의견을 들으며 그만하라고 말할 뿐, 신하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인조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④ 칸이 조선에 온 상황을 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3** ㉠에는 목숨을 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으며, ㉡에는 목숨보다 의를 더 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 04**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하고 갈등하던 인조는 칸이 보낸 서신을 읽고 난 후, “나는, 살고자 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 김상헌의 주장대로 의를 앞세워 끝까지 싸우기보다는 최명길의 주장대로 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 05** 이 작품에는 해설자가 따로 등장하지 않는다. 사건의 양상과 인물의 심리는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관객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건과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사건의 양상과 인물의 심리 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감상한다.
- 06** 칸의 서신을 읽고 난 후, 인조는 신료들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묻는다. 하지만 김류는 자꾸 중론을 묻지 말라며 모든 결정의 책임을 인조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인다.

채점 기준	배점
본문의 내용에서 근거를 찾아 인물의 성격을 적절하게 서술함.	5점
인물의 성격을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문장 형식을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작품 2 홍보가

p. 153

- 01** ③ **02** ③ **03** ① **04** ⑤ **05** ① **06** ②
07 예시 답안 당장 자신과 가족도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상황에서 동자들에게 점심 요기를 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08 ② **09** ⑤ **10** ① **11** ⑤ **12** ⑤ **13** ③
14 예시 답안 “천하에 중한 의가 형제밖에 또 있느냐.”라는 말을 통해 형제간의 의(우애)를 강조하였다.

- 01** 제시된 부분에서는 배경을 묘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인물의 심리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판소리의 창자(소리꾼)가 서술자가 되어 장면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② ‘컹컹’, ‘시르르렁 실근’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다.
 ④ ‘컹컹 짝어 놓는다’, ‘에이여루 당겨 주소’ 등의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⑤ 박을 놓은 곳을 나열하면서 ‘개문방’, ‘생문방’과 유사하게 ‘방’으로 끝나는 말인 ‘복덕방’을 넣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02** [B]에서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인 사람은 홍보가 아니라 홍보의 아내이다. 홍보가 박을 탈 때 박노래를 불러 보자고 제안하자 홍보 아내는 “아이고 부끄러워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보가 아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3** ㉠은 아무리 많은 쌀이 있어도 자기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있는 속담은 ‘남의 돈 천 냥이 내 돈 한 톨만 못하다’이다. 이 속담은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자기가 직접 가진 것이 더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 ②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는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나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③ ‘남 떡 먹는데 팔고물 떨어지는 걱정 한다’는 남의 일에 쓸데없이 걱정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남을 물에 넣으려면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간다’는 남을 해하려 하면 자기가 먼저 그러한 일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남의 손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이 잡은 일감이 더 헐어 보인다’는 물건은 남의 것이 제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일은 남의 일이 제 일보다 더 쉬워 보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04** ㄴ은 홍보의 선행에 보답하기 위해 ‘푸른 옷 입은 동자’가 박 속에서 나와 각종 약을 주는 설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ㄷ은 동자가 준 약의 쓰임새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ㄹ은 홍보가 자기도 굶고 있으면서도 동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는 모습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홍보의 선행이 보상을 바라고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05** 홍보는 박을 타서 박속은 끓여 먹고, 바가지는 팔아다가 끓은 자식을 구급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박속이 행 비어 있고 동자 한 쌍이 나오자 “이런 재변 보았나.”라며 크게 실망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동자들에게 분노를 느끼며 따지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⑤ “허 참 도망해야 되었나. 죽자꾸나.”라는 말을 통해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자가 혹시라도 자신을 해치러 온 것은 아닌지 경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06** ㉠은 운수가 나쁜 사람은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일이 잘 안됨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뜻을 지닌 속담은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이다.

오답 풀이

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③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철없이 함부로 덤비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아무리 뜻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권하거나 꾀고 달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한다는 말이다.

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뒤에 가서 불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07** 홍보는 먹을 것이 없어 가족 모두가 굶주리고 있는 처지이다. 그런데도 동자에게 “아무리 가난하나 점심 요기해야 하지.”라는 인사를 건네고 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헛인사’라고 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홍보의 형편과 관련지어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함.	5점
홍보의 형편만을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 08** [A]에는 연쇄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연쇄적 표현이란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을 뜻한다.

오답 풀이

① ‘홍보가 좋아라고’, ‘붓고 나면 도로 수북’, ‘비워 내고’ 등과 같은 구절을 되풀이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아이고 좋아라.”라는 감탄문을 통해 벌어지는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판소리의 장단 중 가장 빠른 장단인 ‘휘모리’ 장단에 맞추어 인물의 흥겨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⑤ 서술어를 생략하고 ‘가뜩’을 반복하며 마무리하여 쌀과 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속도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 09** “부모님이 모은 세간 잡것들에게 다 뜯기니, 이럴 줄 알았더라면 시아재 굶을 적에 도와주지 아니하였을까.”라는 말을 통해 박에서 나온 잡것들에게 모든 재산을 잃는 상황에서 지난날 굶주리던 홍보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0** 동자가 돌아간 후 박속에서 발견된 ‘괘 두 짝’은 홍보로 하여금 그 속에 또 무엇이 들어 있을지 궁금하게 하며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 11** 놀보는 박을 그만 타자는 아내의 간청을 받아들여 남은 박통을 멀리 내버리려고 한다. 이미 재산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또다시 박에서 잡것이 나온다면 자신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갈 것이라는 아내의 염려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 12** 박에서 나온 장비의 말을 ‘자진모리’에서 ‘엇모리’로 변화를 주어 전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니다. ‘자진모리’ 장단에서는 놀보

의 죄상이 열거되고 있으며, ‘엇모리’ 장단에서는 그 별로 죽이겠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오답 풀이

- ① 박에서 장비가 나와 놀보를 죽이려 하는 설정은 비현실적이다. 이러한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 ② ‘뜻밖에 야단난다.’라는 현재형 문장 뒤에 야단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③ 제시된 부분에서는 ‘창’과 ‘아니리’를 교차하면서 극적인 효과를 더 강화하고 있다.
- ④ ‘신장은 팔 척이요 얼굴은 먹빛 같고 ~ 장팔 사모 장창을 번듯 들고’에서 장비의 외양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강인함과 무서움을 강조하고 있다.

13 ㉠에서 홍보는 형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자신이 형의 죄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신도 형과 함께 죽이라며 선처를 바랐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로 볼 수 없다.

14 장비는 『삼국지연의』 속 인물로 형제간의 돈독한 우애를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장비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장비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주제만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점

소단원 평가 문제

p. 166

- 01 ⑤ 02 ② 03 ① 04 ④ 05 ⑤ 06 ①
07 예시 답안 안자가 가난한 형편에도 도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바가지 때문이다. 우리도 가난하지만 바가지가 생기니 안자처럼 도를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다. 08 ④ 09 ①

01 명길과 상헌의 의견을 들던 인조는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로 “그만하거라.”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상헌과 명길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큰 목소리’로 “그만하라 하지 않았느냐!”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부분에서는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제시된 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될 뿐 시간의 역전적인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제시된 부분에서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상징적인 매개물이 등장하지 않았다.

④ 지시문에서는 인물의 움직임과 어조가 제시되어 있을 뿐 인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2 ‘명길’의 대사에서 고사를 활용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우선 칸에게 문서를 보내 먼저 예를 보이소서.’와 같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정녕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사옵니까?’라고 말하며 칸에게 문서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수용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④ 칸에게 문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칸의 신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문서를 보내야 한다는 명길을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⑤ 상헌은 명길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며 인조가 자신의 의견을 따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03 이 글에서는 인물이 대사를 할 때마다 그 인물의 모습을 C.U.로 보여 준다. 이러한 화면 제시를 통해 인물의 말과 표정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주어 치열하게 전개되는 논쟁에 몰입하게 하고 있다.

04 판소리는 창과 아니리, 발림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사는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그러나 우연한 사건이나 비현실적 사건이 전개되기도 하고 장면의 극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긴밀한 인과 구조에 의해 서사가 전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05 판소리에서 ‘아니리’는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을 뜻한다.

오답 풀이

① ‘아니리’ 부분에서는 특별히 운율감이 중시되지 않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정한 음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전까지 진행되어 온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드러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③ 한자어가 일부 쓰이기는 했지만 한문 투의 문장보다는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법한 문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06 제시된 부분에서 홍보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아내가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박을 타면서 박노래를 부르려고 한다.

07 홍보는 ‘박’과 관련한 안자의 고사를 아내에게 말하면서 박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박을 타는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홍보와 안자의 공통점을 포함하여 홍보의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홍보의 의도는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홍보와 안자의 공통점을 포함하지 않음.	3점
위의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바가지’라는 단어를 누락한 경우	-1점

08 (나)는 판소리 사설로, 소설이나 만화,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갈래로 재구성이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갈래로 재창작되기도 하였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실제로 일어났던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나)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
- ② (가)는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지만, (나)는 창자 한 사람에 의해 사건이 전달된다.
- ③ (가)는 권선징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주제 의식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나)에는 장비의 말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⑤ (가)는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로 실제로 영화로 상영될 때에는 배경 음악이 중요한 요소로 쓰인다. (나) 역시 ‘아니리’를 제외한 ‘창’ 부분에서 음악적 요소가 중요하게 쓰인다.

09 인조가 칸의 서신에 담긴 행복의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는 있지만, 인조가 칸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

- 01 ③ 02 ④ 03 ① 04 ⑤ 05 ⑤ 06 ③
07 ⑤ 08 ② 09 ① 10 ② 11 ③ 12 ④

01 (가)는 ‘어와 허스로드’라는 구절에서, (나)는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라는 구절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눕픈 뵈’, ‘물 ㄱ’, ‘모침’ 등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지만, (나)는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4음보의 정형률을 가지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구절은 없다.
- ⑤ (가)와 (나)는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가)는 다른 여인과 말을 주고받고 있으며, (나)는 독백체이다.

02 ㉠은 임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생긴 걱정을 잊고자 하지만 잊을 수 없는 화자의 상태를 나타낸 표현이다. 그만큼 임에 대한 사랑이 각별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임과의 재회를 체념하려는 화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03 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높은 산에 올라가지만, ‘구름’과 ‘안개’로 인해 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구름’과 ‘안개’는 화자와 임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기>에 따르면 ‘동인 세력’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② ‘일월’은 화자가 보고 싶은 대상으로, 임금인 ‘선조’를 의미한다.
- ③ ‘오던된 계성’은 꿈에서 화자와 임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임금에 대한 작가 ‘정철’의 서운함과 관계가 없다.
- ④ ‘편작’이 온다고 한들 화자의 상사병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임금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존재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⑤ ‘향 트된 놀애’는 화자가 임에게 닿기를 소망하는 의지를 드러내므로, 임금과 작가 사이를 방해하는 정치적 세력과는 관계가 없다.

- 04 (나)는 ‘머언 산 청운사’에서부터 ‘자하산’, ‘느릅나무’, ‘청노루’, ‘구름’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소년’이 ‘천변 풍경’을 보며 ‘가평’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가)의 ‘소년’은 ‘이곳 풍경’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지만,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며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③ ‘소년’의 시선은 ‘개천 속 빨래터’에서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로 이동하고 있다.
- ④ (나)에서 세속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05 (가)의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구절을 통해 거적 위에 뒹굴고 있는 객정이 때들도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소년’은 서울 생활을 동경해 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 06 [A]에서는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도 첫 연습을 하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기억난다.’라는 구절을 통해 현재 시점의 ‘나’가 과거 시점의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글쓴이가 제시된 글을 감상하며 의문이 들었던 부분과 그 까닭을 언급한 내용은 <보기>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음악 선생’이 자진 사퇴를 권한 행동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이 작품은 다름에 대한 배려,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전에 공동체를 배려하는 가치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과 ‘내 평소 가치관과 비슷하기 때문이다.’를 통해 인상적인 내용과 그 까닭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국가가 있기에 국민은 안전을 보장받으며 편히 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례를 들어 ‘공동체가 있기에 개인은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08 <보기>의 글쓴이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을 평가하자면, ‘엇박자 D’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더라도 공동체의 목적인 ‘합창의 목적’을 우선시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 09 ‘인조’는 ‘명길’과 ‘상현’의 상반된 의견을 듣고 어느 쪽으로든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상현’은 칸에게 문서를 보내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③ ‘명길’은 칸에게 문서를 보내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과 화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 ④ ‘명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현’을 비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상현’은 ‘명길’을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라고 비판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고 상대방을 탓하고 있지는 않다.

- 10 현재 상황에 대한 인물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대사를 첨가한 내용은 [A]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지시문을 통해 인물들이 어떤 어조로 이야기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감독의 연출 의도가 더욱 잘 드러나게끔 하고 있다.
- ③ ‘인조’의 반응을 통해 ‘인조’가 ‘명길’과 ‘상현’의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현’과 ‘명길’의 대사를 서로 엇갈려 말하게끔 대사를 분절하여 제시해 인물들 간의 의견 대립을 극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 ⑤ 클로즈업(C.U.)의 촬영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표정을 더욱 잘 드러내어 심리를 잘 표현하게끔 연출하고 있다.

- 11 (가)에서는 ‘놀보’가 ‘홍보’를 탓하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에 지은 죄를 반성하겠으니 동생 형을 용서하소.’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12 ㉠은 ‘홍부’의 잘못으로 ‘놀부’도 고초를 겪었지만, ‘홍부’의 사죄하는 말을 듣고 ‘놀부’가 ‘홍부’를 불쌍하게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홍부’ 탓에 옥살이를 하게 된 ‘놀부’의 억울한 마음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1] 서정 갈래

작품 1 찬기파랑가

p. 185

01 ① 02 ② 03 ⑤ 04 ③

01 이 시가는 신라 시대 충담사가 기파랑이라는 화랑의 인품을 기리기 위해 지은 향가이다. 달, 잣나무 가지 등의 자연물을 통해 기파랑의 인격을 형상화하고 있다. 9~10행에서는 감탄의 뜻을 더하는 조사 ‘이여’와 감탄사 ‘아야’를 통해 영탄적 어조를 강하게 드러내며 기파랑의 인품과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02 ‘흰 구름’은 시적 대상인 기파랑의 부재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소재이다. 기파랑을 빗대어 표현한 ‘달’이 ‘흰 구름’을 따라 떠나갔다는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을 가리는 존재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달’은 광명한 인격과 풍모를 갖추었던 기파랑의 생전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자연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 ③ ‘잣나무 가지’는 눈으로도 덮을 수 없는 존재,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지닌 대상으로,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 드높은 기상을 상징한다.
- ④ ‘눈’은 ‘잣나무 가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시련, 역경, 고난, 부정한 세력 등을 의미한다.
- ⑤ ‘고깔’은 기파랑이 화랑의 우두머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03 화자는 ‘흐느끼며’ ‘달이’ ‘떠간 언저리’를 바라보면서 ‘기랑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흐느끼며’는 화자가 예찬하며 그리워하는 대상인 기파랑의 부재로 인해 유발된 정서라고 볼 수 있다.

04 10구체 향가의 낙구는 대부분 감탄사로 시작한다. 이 작품에서도 ‘아야’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기파랑에 대한 추모의 정을 집약하고 있다.

작품 2 정석가

p. 191

01 ⑤ 02 ④ 03 ② 04 예시 답안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임금의 덕을 찬양하고 있다. 05 ③ 06 ② 07 ②

01 「정석가」는 고려 속요로, 고려 속요는 대체로 3·3·4조의 음수율을 기본으로 한다. 3·4조의 음수율은 시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1연에서는 ‘딩아 돌하’에서 호격 조사를 사용하여 청자를 부르며 태평성대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2연과 3연에서는 청자를 직접 호명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삭삭기 세물에 별헤 나눈’과 ‘그 바미 우미도다 삭 나거시아’가, 3연에서는 ‘옥(玉)으로 련(蓮)스고줄 사교이다’와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가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2연과 3연은 내용만 다를 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후렴구인 ‘유덕(有德)호신 님들 여히와지이다’를 통해 주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1연과 2연, 3연은 모두 소망을 나타내는 ‘-호와지이다’라는 어미로 마무리되고 있다.

03 ‘구운 밤’은 씨앗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심는다 하더라도 절대 싹이 날 수 없는 조건이다.

오답 풀이

- ① ‘세물에 별헤’는 불가능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공간이다.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은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조건이다.
- ③ ‘삭 나거시아’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구운 밤에서 움이 돌아 싹이 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임과 이별하고 싶다는 것은 사실상 임과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소망을 강조한 것이다.
- ④ ‘련(蓮)스고줄’이 임에 대한 화자의 굳건한 믿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단서는 없다. 이것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소재로 쓰이고 있다.
- ⑤ ‘그 고지 삼동(三同)이 뛰거시아’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옥으로 새긴 연꽃을 바위 위에 접붙여서 세 묶음의 꽃이 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04 1연은 작품의 나머지 부분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1연을 고려 속요가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면서 첨가된 부분으로 보기도 한다.

채점 기준	배점
1연의 중심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단순히 3행의 내용을 옮겨 쓴 경우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 05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각 행을 대체로 3음보로 구성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2~5연에서는 모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6연에서는 ‘그즈리잇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각 연마다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며 각 구절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06 5연에서는 무쇠로 만든 큰 소가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서 쇠로 된 풀을 먹어야만 임과 이별하고 싶다고 노래하고 있다.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제시하여 임과 절대로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4연에서 무쇠로 만든 ‘털릭’은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기 위한 소재로 쓰이고 있다. 임의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5연에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6연에서 화자의 실망감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⑤ 6연에서는 천 년을 외로이 살아가더라도 임에 대한 믿음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노래하며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07 ‘털슈산(鐵樹山)’은 무쇠로 만든 큰 소가 놓이는 공간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가상의 공간이다. 임과 화자가 서로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작품 3 어부사시사

p. 199

- 01 ① 02 ③ 03 ⑤ 04 예시 답안 소박한(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고자 한다.

- 01 이 시가에서는 대립을 이루는 상징적 시어들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② (라)의 ‘만당토다’에서는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도다’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지국충(至~~知~~愆) 지국충(至~~知~~愆)’은 ‘찌그덩 찌그덩’이라는 노 젓는 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 ④ (나)에서 반찬 없이 연잎에 쓴 밥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⑤ (가)는 봄, (나)는 여름, (다)는 가을, (라)는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각 수에서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이 배경을 이루고 있다.

- 02 (다)에서 ‘어부’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어부’와 자신의 처지를 대조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의 초장에서 화자의 시선이 ‘압개’에서 ‘튀뵈’로 이동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뜰’로, 종장에서는 ‘강촌’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② (나)의 종장에서는 ‘백구’를 등장시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 ④ (라)의 중장에서 ‘눈’의 흰색과 ‘꽃’의 붉은색을 대비하여 화자가 느끼는 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온갖 꽃’을 통해, (나)에서는 ‘년납’, ‘청약립’, ‘녹사의’를 통해, (다)에서는 ‘추강’을 통해, (라)에서는 ‘ᄇ눈 눈’과 ‘설월’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03 조선 전기 시조에서 자연은 작가의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거나 연군의 정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강호 자연을 아름다운 대상 그 자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겨나는데, 「어부사시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04 <보기>에서 ‘단표누항’은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이다. ‘누항’은 좁고 지저분하며 더러운 거리를 뜻하는 말로 자기가 사는 곳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채점 기준	배점
두 작품에 공통으로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소박한(가난한) 삶’의 모습만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밝히지 않은 경우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작품 4 참회록

p. 205

- 01 ④ 02 ③ 03 ④ 04 예시 답안 1연에서는 망국민으로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도록 하고, 4연에서는 암울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01 2연에서는 ‘줄이자’, 4연에서는 ‘닭아보자’에 청유형 어미가 쓰였다. 이를 통해 자기 성찰에 대한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는 외로움의 정서를 심화하기 위하여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사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수미상관’은 시의 처음과 끝에 같거나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배치하는 기법을 말한다. 이 시에서는 수미상관의 기법이 쓰이지 않았다.
 ③ 2연에서 참회의 내용을 회상의 형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⑤ 이 시에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다.

- 02 화자의 바람은 ‘즐거운 날’을 되찾는 것이다. 2연에 이어지는 3연에서의 또 한 번의 참회를 통해 화자는 ‘내일’이 되었던 ‘모레’가 되었던 언젠가는 오게 될 미래의 ‘그 어느 즐거운 날’의 도래에 대한 믿음을 다지고 있으며,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현재의 자신을 성찰하며 참회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일을 예견함으로써 자신의 바람이 실현되기 어려움을 강조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3 화자가 ‘거울 속’에서 보게 되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치열한 자기 성찰의 결과로 나타난 자아의 모습이 구체화된 모습이다. ‘거울 속’은 현재 거울에 비친 미래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 04 이 시에서 ‘구리거울’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 치욕적인 역사 속에서 소극적으로 살아온 화자의 모습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4연에서 거울을 닦는 행위는 화자가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현재의 암울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1연과 4연에서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1연과 4연 중 어느 하나의 기능만을 서술한 경우	3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작품 5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p. 211

- 01 ⑤ 02 ① 03 ⑤ 04 ⑤ 05 ② 06 ②
 07 예시 답안 웅졸하고 보잘것없는 화자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01 화자가 ‘나’로 등장하여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웅졸한 삶에 대한 자조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백적이고 자조적인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② 제시된 부분에서는 사물을 의인화시켜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왕궁의 음탕’은 분개해야 할 대상, ‘설령탕집 주인’과 ‘야경꾼’은 분개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조적인 소재를 사용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화자의 달라진 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이 시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02 ①에는 설령탕집 주인을 비하하는 비속어가 쓰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설령탕집 주인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

라, 화자 자신의 속되고 비겁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03 ㉔는 시에서는 잘 쓰지 않는 일상적인 표현이다. 특정 사건을 소개하여 자신의 웅졸함과 소시민성이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웅졸한 태도를 지니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04 제시된 부분에서는 공간의 이동과 이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마지막 연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가 결합된 ‘작으냐’라는 서술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기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마지막 연에서 화자 자신의 왜소한 모습을 자연물인 ‘모래’, ‘바람’, ‘먼지’, ‘풀’ 등에 대비하여 자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말줄임표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자기반성적 태도의 지속을 나타내는 한편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④ 4연에서는 ‘지다’를, 5연에서는 ‘조금쯤’을, 6연에서는 ‘못하고’와 ‘때문에’를, 7연에서는 ‘얼마큼 작으냐’를 반복하여 화자 자신의 웅졸하고 왜소한 모습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05 이 시에서 ‘설령탕집 주인’, ‘이발쟁이’와 ‘야경꾼’은 힘없는 자에 해당하며, ‘땅 주인’과 ‘구청 직원’, ‘동회 직원’은 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화자는 힘 있는 자에게는 분개하지 못하고 힘없는 자에게만 분개하는 자신의 웅졸하고 무기력한 소시민적 삶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

06 ‘절정 위’는 본질적인 일, 불의에 항거하는 한복판, 화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가리키며, ‘조금쯤 옆’은 비본질적인 일들, 불의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방관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07 ‘모래’, ‘바람’, ‘먼지’, ‘풀’은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자연물이며, 화자의 왜소한 모습과 비교되는 대상들이다.

채점 기준	배점
소재들의 공통적인 역할을 화자의 모습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화자의 모습에 대한 언급 없이 소재들의 특징만을 언급한 경우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 01** ② **02** ③ **03** ② **04** ④ **05** 예시 답안 고
려 속요는 구비 전승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에 유행했던 구
절이 차용되었기 때문이다. **06** ③ **07** 예시 답안 기
파랑의 인품이 고결하여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도 막지 못할 화랑
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예찬한 것이다. **08** ③ **09** ⑤
10 ② **11** ④ **12** ③ **13** ⑤ **14** ⑤ **15** ③
16 ⑤ **17** ③ **18** ④ **19** ③

01 (가)의 9~10행은 낙구에 해당하며, ‘아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여 시적 정서를 집약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에는 낙구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 향가는 초기 민요계 향가를 제외하고는 승려와 귀족 등 지배 계층에서 주로 향유되었으며, (나) 고려 속요는 대부분 민간에서 향유되다가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었다.

③ (가)는 신라 시대, (나)는 고려 시대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두 갈래 모두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와 같은 향가에는 후렴구가 나타나지 않으며, (나)와 같은 고려 속요에는 의미 없는 후렴구가 반복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나)에서 후렴구의 역할을 하는 ‘유덕(有德) ㅎ신 님 여히 ㅎ와지이다’는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반어적 의미를 담고 있다.

⑤ (가)와 같은 향가는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향찰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나)와 같은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 한글 창제 이후 한글로 기록되었다.

02 (가)에서는 ‘둘’, ‘자식가지’ 등의 자연물에 빗대어 기파랑의 고매한 인격을 예찬하고 있다. (나)의 6연에서는 천 년을 따로 살아도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03 (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임과 이별하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절대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②에서는 오리의 짧은 다리가 학의 다리처럼 되고, 검은 까마귀가 백로가 되는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만수무강하여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하여 자신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시적 발상이 쓰였다고 볼 수 있다.

04 '선왕성덕(先王聖代)에 노니 **은**와지이다'는 '태평성대에 노닐고 싶습니다'라는 뜻으로 다른 연과 내용 면에서 관련이 없다. 이런 점에서 1연을 고려 속요가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05 6연의 내용은 고려 속요 「서경별곡」의 2연과 유사하다. 이는 당시에 유행했던 구절이 구전 과정에서 차용되었거나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고려 속요의 전승 과정에 나타난 특징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서술함.	5점
고려 속요의 전승 과정에 나타난 특징만을 서술함.	3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06 ㉠은 '날이 지니시던' 것으로서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이므로 화자가 살아가면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화자가 물아일체의 경지에 오르기를 바란다고 볼 만한 시적 상황이나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화자는 '마음의 갓'을 '쫓고 있'다고 했으므로 '기량'과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화자가 현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려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화자가 따르고자 하는 대상이지,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07 'жат나무 가지'는 고결하고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을 부각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련, 역경 등을 상징하는 '눈'과의 대비를 통해 기파랑이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직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소재가 상징하는 의미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밝혀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소재가 상징하는 의미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중 어느 하나만을 밝혀 서술한 경우	3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08 현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제시한 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 임과 이별하고 싶다는 것은 임과 절대로 이별할 수 없다는 소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09 조선 전기에 주류를 이룬, 자연을 유학적 이념으로 노래하는 강호가도적 경향은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는데, 17세기에 강호가도의 모습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 절정을 이룬다.

10 (가)에서는 '압개예 안개 짓고 뒤희희 **히** 비친다', '밤물은 거의 디고 난물이 미러온다' 등에서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ㄱ). 'ᄃᆞᆫ 눈 빠린 길 블근 곳 훑더던 **디** 흥치며 거러가서'에서는 흰색과 붉은색의 대비를 통해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ㄷ). '춘사 1'에서는 '온갓 꽃', '하사 2'에서는 '년납'과 '청약립', '녹사의', '추사 1'에서는 '쥬강', '동사 10'에서는 '눈'과 '설월'을 통해 각 계절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ㄹ).

오답 풀이

- ㄴ.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속세의 부정적 면모를 지적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 ㄷ. 의도적으로 어순을 바꾸어 대상과의 거리감을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11 ㉠은 날이 저물어서 쉬는 것이 마땅하다고 노래한 내용으로,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려는 화자의 생각이 나타난 것이다. 바다의 험난함을 이겨 낸 화자의 안도감과 관련이 없다.

12 (나)의 중장에서 '도사공'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노와 닻을 잃은 것을 시작으로 수적을 만나기까지 불행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듯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오답 풀이

- ① '온고지신(溫故知新)'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을 뜻하는 말이다.
- ② '마이동풍(馬耳東風)'은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이다.

- ④ ‘각주구검(刻舟求劍)’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吉凶禍福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 13** 1연에서는 ‘이다지도 욱될까’, 2연에서는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3연에서는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와 같이 의문형 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사물에 인격을 부여해 시적 정서를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운석’을 하강의 이미지로 볼 수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반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1연은 ‘욕될까’, 2연은 ‘살아왔던가’, 3연은 ‘했던가’, 4연은 ‘닭아 보자’, 5연은 ‘나타나 온다’로 마무리하였다.

- 14**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민족이 아니라 미래의 화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희생의 길을 걷는 화자의 순교자적 모습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파란 녹’과 ‘어느 왕조의 유물’, ‘이다지도 욱될까’는 망국민으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 ② 화자는 참회의 과정에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온 부끄러운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화자는 ‘그 어느 즐거운 날’을 떠올리며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④ 4연에서 화자는 (녹이 낀) 거울을 온몸으로 닦으려 하고 있다. 이는 치열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15** ㉠은 망한 왕조의 무기력한 지식인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현재 상황에서 비롯된 참회의 내용이며, ㉡은 ‘그 어느 즐거운 날’이라는 미래 상황에서 하게 될 참회의 내용에 해당한다.

- 16** 이 시에서 ‘운석’은 어두운 현실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보기〉의 ‘달’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① 이 시의 ‘구리거울’과 〈보기〉의 ‘우물’은 모두 화자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 ② 이 시의 ‘욕될까’와 〈보기〉의 ‘미워져’는 화자 자신의 무기력한 삶에서 오는 부끄러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이 시의 ‘어느 즐거운 날’은 ‘밤’으로 상징되는 일제 강점기의 현실이 끝나고 해방을 맞이한 날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우물 속 풍경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으로 묘사되며, 화자는 이러한 우물 속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 안에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고 하며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 ④ 이 시의 ‘부끄러운 고백’과 〈보기〉의 ‘가없어집니다’는 화자의 자아 성찰의 결과로 나타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연민의 정서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 17** 이 시에서는 색채 대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으며,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강조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에는 분개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에 분개하는 상황을 제시하여 옹졸한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이 글에서는 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일상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1연의 1행에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시의 마지막까지 작은 것에만 분개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3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옹졸한 모습이 유구하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 18** 4연의 ‘개의 울음소리’와 ‘애늬의 투정’은 비겁하고 나약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자아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역할과는 관련이 없다

- 19** 김수영의 시는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시에서도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소시민성을 반성하고 있다.

[2] 서사 갈래

작품 1 주몽 신화

p. 227

-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5 ⑤ 06 ②
07 예시 답안 고귀한 혈통을 지닌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과 신이 한 사건을 겪으며 나라를 건국하는 업적을 쌓는 신성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01 이 글은 신화에 해당한다. 신화는 신적 존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비범한 능력을 통해 신성한 위업(천지 창조, 국가 건설 등)을 달성하는 이야기이다.

오답 풀이

- ② 민담의 특성에 해당한다.
③ 신적 존재를 비범한 인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신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역경을 이겨 낸 후 특별한 업적을 이룬다. 비범한 주인공이 등장하여 비극적 최후를 맞는 서사는 전설에서 종종 볼 수 있다.
④ 전설의 특성에 해당한다.
⑤ 신화와 전설, 민담은 모두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문자로 채록되어 전하며, 그 과정에서 집단의 의식이 반영되어 변화해 왔다.

02 금와는 사람이 알을 낳은 것을 괴이하게 여겨 알을 버려 개와 돼지에게 주었고, 또 길과 들에 내다 버리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알을 쪼개려고도 하였다. 주몽은 이처럼 태어나자마자 버림받는 시련을 겪게 되지만 짐승들의 보호로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

03 유화는 금와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우발수에 귀양을 오기까지의 사연을 요약적으로 밝히고 있다.

04 엄수에서 위기에 처한 주몽 일행을 돕기 위해 물고기와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몽이 천제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라고 고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물의 신성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ㄱ). 주몽이라는 이름과 '줄본주(현도군의 지경)' 등 구체적인 인명과 지명을 제시하여 진실성을 더해 주고 있다(ㄴ). 대소와 주몽의 어머니, 주몽의 말을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ㄷ. 대소를 비롯한 금와의 일곱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 하였다. 주몽의 입장에서 이들을 악인으로 볼

수 있지만, 선인에서 악인으로 전환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05 유화는 대소를 비롯한 왕의 여러 아들과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이 이를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일러 주었다.

오답 풀이

- ① 좋은 말을 알아보는 능력은 주몽에게 있었다.
②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는 하백의 딸이며, 천제의 아들인 해모수와 사이에서 주몽을 낳은 것이다.
③ 유화가 주몽에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역을 알려 주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주몽이 엄수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준 것은 물고기와 자라이다.

06 주몽은 자신의 혈통을 밝힌 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며 위기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07 신화는 신격(神格)에 대한 이야기를 신성한 태도로 서술하고 이것이 전승되는 설화이다. 신화에서는 신격에 해당하는 영웅적 인물의 비범한 내력을 설명하고 신성한 업적을 달성한 이야기가 담긴다.

채점 기준	배점
주인공의 특성과 업적을 바탕으로 신화로 분류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주인공의 특성과 업적 중 어느 하나만을 바탕으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작품 2 이생규장전

p. 235

- 01 ⑤ 02 ⑤ 03 ② 04 예시 답안 어느 날 이생은 담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05 ① 06 ③ 07 ④
08 예시 답안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돌아와 이생과 재회한다
09 ③ 10 ① 11 ② 12 예시 답안 최 씨가 비록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인연을 오랫동안 계속 이어 나가고 싶다. 13 ② 14 ② 15 ④ 16 예시 답안 ③ 흥건적의 난으로 최 씨가 죽게 되면서 둘은 이별한. ⑥ 최 씨가 귀신의 몸으로 이승에 돌아와 이생과의 인연을 이어 감. 17 ④ 18 ⑤ 19 예시 답안 이생은 김시습을, 최 씨는 단종을 가리킨다.

- 01 「이생규장전」은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초현실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것 또한 고전 소설의 특징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가)에서는 초현실적인 사건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세상 사람들이 이생을 ‘풍류 재자’, 최 씨를 ‘요조숙녀’로 칭찬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재자가인(才子佳人)’은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④ 이생에 대해서는 ‘나이는 열여덟 ~ 시를 읽고는 하였다.’, 최 씨에 대해서는 ‘나이는 15, 6세쯤 되었다. ~ 시문에 뛰어났다.’라고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02 이생이 국학에 가기 위해 최 씨의 집을 지나친 것이지, 최 씨의 자태를 흠모하여 일부러 그 집을 지나쳐 다닌 것은 아니다.

- 03 ㉠은 담장 안의 풍경을 묘사한 것으로 최 씨의 아름다운 모습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04 제목 ‘이생규장전’은 ‘이생이 담장 안을 들여다본 이야기’라는 뜻으로 이를 계기로 이생과 최 씨의 인연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채점 기준	배점
〈예시 답안〉과 같이 문장 전체를 서술함.	4점
‘담장 안을 들여다보았다.’만 서술함.	2점

- 05 ‘그러나 그 집은 이미 ~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에서 홍건적이 소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옛집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로 묘사하여 폐허가 된 상황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06 최 씨가 이생의 손을 움켜잡고 한바탕 통곡한 것을 통해, 최 씨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생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도적이 최 씨를 겁탈하려 할 때, 최 씨는 “호귀야, 나를 죽여 ~ 배필이 되겠느냐?”라며 크게 꾸짖는다. 이를 통해 정조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 길게 탄식을 하였다.’를 통해 이생의 비통한 심정을 알 수 있다.

- ④ 이생은 최 씨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최 씨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죽은 최 씨의 출현에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 ⑤ 홍건적은 최 씨가 크게 꾸짖자 잔인하게 그녀를 죽였다.

- 07 갑작스러운 홍건적의 침략으로 백성들은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각기 살아 나갈 방법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와 관련 있는 한자 성어는 ‘제각기 살아 나갈 방법을 꾀함.’이라는 뜻의 ‘각자도생(各自圖生)’이다.

오답 풀이

- ① ‘풍전등화(風前燈火)’는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② ‘새옹지마(塞翁之馬)’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 ③ ‘순망치한(唇亡齒寒)’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 ⑤ ‘호가호위(狐假虎威)’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로,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것을 뜻한다.

- 08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와서 이생과 다시 연을 맺는 내용은 이승 사람과 저승 영혼이 사랑을 나누는 인귀 교환 설화의 특징이 나타난 부분으로 이 소설의 전기성을 잘 보여 준다.

채점 기준	배점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내용과 이생과 재회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서술함.	5점
단순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만났다는 내용만 서술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 09 제시된 부분에서는 주로 죽은 최 씨의 말을 통해 그동안 벌어졌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며, 인물의 처지와 심정이 드러나 있다. 서술자가 인물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지만, 인물들의 미래를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부분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이나 갈등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죽은 사람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다는 설정은 전기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 ④ ‘이생은 기뻐하는 한편 또한 감격하여 말하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 ⑤ 최 씨의 말을 통해 그동안 벌어졌던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10 최 씨는 자신을 ‘찍을 잃고 외파로 날아가는 새’에 비유하여 자신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이생에게 하소연하고 있다.
- 11 최 씨는 천녀의 고사를 들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말하고 있다.
- 12 최 씨는 비록 죽은 몸이지만 이생과 부부의 연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으며, 이생은 자신도 바라는 바라고 응답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최 씨의 상황을 포함하여 두 사람의 공통적인 바람을 적절하게 서술함.	5점
최 씨의 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바람만을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 13 저승의 귀신과 이승의 사람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전기 소설’로 볼 수 있다. ‘전기’는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는 뜻으로서, 중국 당나라 때 성행하였던 양식이었다.

오답 풀이

- ① 환몽 소설(幻夢小說)은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이다. 주로 주인공이 현실의 자아를 그대로 가진 채 꿈속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뒤에 꿈에서 깨어나 스스로 꿈속에서 겪은 일을 기록하는 내용이다.
- ③ 영웅 소설(英雄小說)은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개인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수행하고, 그 결과 집단의 추앙을 받게 되는 영웅을 그린 소설이다.

- ④ 군담 소설(軍談小說)은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 ⑤ 가정 소설(家庭小說)은 가정을 배경으로 하여 가정 문제나 가족생활, 또는 가족 관계를 소재로 삼는 소설이다.

- 14 이생이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여인과 함께 시구를 주고받으며 화락하게 지내는 모습은 임신양명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 ① 최 씨가 이전의 맹세를 지켜 귀신의 몸으로 이승으로 돌아와 이생과 부부의 연을 이어 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③ 이생은 홍건적의 난 때 도적이 쫓아오자 내달려서 혼자 살아남았으나 최 씨는 구하지 못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④ 이생과 최 씨가 양쪽 집 부모의 해골을 수습하고 극진히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는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⑤ 최 씨는 이생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생사의 구분에도 굴하지 않고 환신하여 나타나 이생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 15 이생이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은 것은 최 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이다. 이를 통해 최 씨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6 ㉠은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빚어졌으며, ㉡는 죽은 최 씨가 천제의 배려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채점 기준	배점
㉠와 ㉡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함.	5점
㉠와 ㉡에 들어갈 내용 중 어느 하나만을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 17 「이생규장전」은 중심인물인 이생과 최 씨의 만남과 이별이 중심 사건을 이루고 있다.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립은 홍건적에 저항하는 최 씨의 모습에서 잠깐 나왔을 뿐이다.

오답 풀이

- ① 저승으로 돌아간 최 씨를 추모하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이생의 삶은 작품의 비극성을 한층 더 높여 준다고 볼 수 있다.

- ② 중심인물인 이생과 최 씨의 세 번에 걸친 만남과 이별을 중심 사건으로 하고 있다.
- ③ 최 씨는 이미 죽어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려 있기 때문에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죽은 최 씨가 이승으로 돌아와 이생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전기적 사건에 해당한다.

18 [A]는 흥건적의 난으로 인한 이생과 최 씨의 이별, 이후 죽음을 초월한 만남과 이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기보다 서정적 감흥을 일으키고 있다.

19 <보기>에 따르면 이생은 계유정난 이후 살아남은 신하, 즉 생육신 중의 한 사람인 김시습 자신을 가리키고, 최 씨는 불의한 무리들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단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이생과 최 씨가 가리키는 사람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함.	4점
이생과 최 씨가 가리키는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적절하게 서술함.	2점

작품 3 태평천하

p. 249

- 01** ④ **02** ② **03** 예시 답안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04** 예시 답안 화적 때에 의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고 노적이 불타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 05** ⑤ **06** ③ **07** ② **08** 예시 답안 표면적으로는 손자들이 호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이다. **09** ⑤
- 10** ② **11** ① **12** ① **13** ② **14** ④ **15** ④
- 16** 예시 답안 ㉓는 윤 직원 영감의 가문(집안)을, ㉔는 손자인 종학을 가리킨다. **17** ③ **18** ④ **19** ①
- 20** 예시 답안 윤 직원 영감은 사회주의를 세상을 망치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부랑당 패로 인식하고 있다.

01 (가)에는 ‘부르짖은 적이 있겠어요.’, ‘과연 승리를 했겠어요.’ 등과 같은 판소리 사설 투의 문체가 자주 보인다. 서술자가 판소리의 창자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중심인물인 윤 직원 영감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부분에서는 ‘윤 두꺼비’, ‘말 대가리’ 등과 같이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별명은 제시되어 있지만, 언어유희가 사용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제시된 부분에서는 비교적 긴 문장을 사용하여 윤 직원 영감의 성격을 짐작하도록 하는 한편, 방에 모인 식구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제시된 부분에서는 독자에게 묻고 답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제시된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음보를 확인할 수 없다.

02 윤 직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현실에 격분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투쟁한 인물이다.

03 이 글은 각 장마다 소재목을 사용하여 앞으로 벌어지게 될 사건의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도 외부의 적이 아닌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에 의해 진나라가 망하게 된 것처럼, 윤 직원이 가장 아끼는 둘째 손자 종학에 의해 집안이 몰락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04 윤 직원 영감은 반세기 전에 아버지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타느라고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자기만 빼고 세상이 망하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채점 기준	배점
두 가지 사건을 근거로 ㉑과 같이 인식한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함.	5점
한 가지 사건만을 근거로 ㉑과 같이 인식한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함.	3점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㉑과 같이 인식한 까닭을 적절하게 서술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05 (나)에서는 주로 윤 직원 영감이 종수를 훈계하는 말이 제시되어 있다. 이 상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 주기 위해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③ 윤 직원 영감과 종수가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지만, 윤 직원 영감의 훈계하는 말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종수는 간단한 대답만을 하고 있다. 종수가 ‘네’라는 대답을 반복하는 것을 볼 때 인물 간의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06 ‘작년 올루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히피 쓰기는 허녕가 부더라마는, 그것두 허가사 네게다 대머는 안 쓰는 심이지.’라는 윤 직원 영감의 말을 통해 종학이가 작년부터 돈을 헤프게 쓰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종수에 비하면 안 쓰는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7 윤 직원 영감은 종수는 군수, 종학이는 경찰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손자들의 출세가 결코 윤 직원 영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08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주된 관심사인 윤 직원 영감의 입장에서는 손자들이 고위 공무원과 고위 경찰이 되는 것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표면적 이유와 진짜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함.	5점
표면적 이유와 진짜 이유 중 어느 하나만을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09 윤 주사는 간밤에 온 전보를 꺼내어 부친인 윤 직원 영감에게 전달하였다. 윤 직원 영감은 믿고 있었던 종학이가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는다. 방안에 모여 서 있던 식구들도 전보의 내용을 듣고 ‘제가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라고 한 내용을 통해 볼 때 윤 직원 영감과 같은 때에 알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윤 주사의 말 중에서 ‘그놈 동무가 친 전본가 본데’를 통해 알 수 있다.
- ② ‘윤 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 이상타고 꼬집는 소립니다.’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③ ‘이복 누이동생 서울 아씨’와 ‘이복동생 태식이’를 통해 알 수 있다.
- ④ ‘윤 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 민 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지요.’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0 ‘전보’는 종학의 피검이라는 소식을 전해 줌으로써 윤 직원을 절망에 빠뜨리는데, 이로써 국면을 전환하며 새로운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11 평소에는 따로 부르지 않으면 윤 직원 영감이 있는 안방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윤 주사와 윤 직원 영감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날은 부르지 않아도 안방까지 온 것이니, ㉠은 윤 직원 영감이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로 한 말이다. ‘해가 서쪽에서 뜨다’는 전혀 예상 밖의 일이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을 하려고 하거나 하였을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관용적 표현으로, 아들 윤 주사의 방문에 대해 빈정거리며 못마땅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12 ㉡은 전보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라는 윤 직원 영감의 반응을 과장되게 묘사한 표현이다. 인물의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보이도록 하고 있다.

13 이 작품에서는 친일 지주 계층인 윤 직원 영감의 잘못된 현실 인식과 역사의식, 왜곡된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윤 직원 영감을 통해 식민 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하여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친일 지주 계층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14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경찰서장이 되리라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종학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오히려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접한 윤 직원 영감은 ‘그런 처 죽일 놈이, 깎아 죽여두 아깝잖을 놈이!’, ‘오사육시를 헐 놈이’ 등과 같이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15 종학이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기대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오답 풀이

- ①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질 리 없다는 뜻으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 ②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지은 죄가 있으면 자연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 ③ ‘방귀 똥 놈이 성낸다’는 자기가 방귀를 뀌고 오히려 남보고 성낸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오히려 남에게 성냄을 비꼬는 속담이다.
- 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속담이다.

- 16 진나라를 망할 자가 호(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 만리 장성까지 쌓았던 진시황이지만, 결국 진나라를 망한 자는 ‘호(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자식 ‘호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진나라’는 윤 직원의 집안을, ‘호해’는 종학을 가리킨다.

채점 기준	배점
㉔와 ㉕가 가리키는 대상을 적절하게 서술함.	5점
㉔와 ㉕가 가리키는 대상 중 어느 하나만을 적절하게 서술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문장 형태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 17 종학에게 배신감을 느낀 윤 직원 영감은 종학에게 주려고 했던 ‘삼천 석 거리’를 팔아서 경찰서에다 주어 버리겠다고 한다. 자신이 혐오하는 사회주의에 가담한 종학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윤 직원 영감이 구두쇠이기 때문에 종학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그 재산을 ‘사회주의 허는 놈 잡어 가두는 경찰서’에 주겠다고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종학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으로 인한 윤 직원 영감의 절망감과 분노는 ‘몹시 사나운 그 포효’로 묘사될 만큼 컸음을 알 수 있다.
- ② 윤 직원 영감이 분노를 표출하며 내뱉은 ‘부자 놈의 자식’, ‘착착 깎아 죽일 놈!’, ‘죽일 놈!’ 등의 비속어는 그의 천박한 성품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방바닥을 치고 일어나 요란스럽고 팔팔한 몸짓으로 거친 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통해 윤 직원 영감의 불같은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윤 직원 영감은 구한말 자신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아 간 ‘수령’을 ‘화적패’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18 일제 강점기 현실에 대해서 윤 직원 영감은 단순히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기에 ‘태평천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민족의 역사적 현실에 무관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난 현실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
- 19 ‘장수’는 윤 직원 영감을, ‘군졸들’은 집안 식구들을 가리킨다. ‘장수의 죽음’은 윤 직원 영감으로 상징되는 집안의 몰락을 빗대어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20 윤 직원 영감은 구한말 자신의 집안에 큰 피해를 준 화적패와 수령들을 언급한 후, 사회주의를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라고 말하고 있다.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과거 화적패나 수령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본문에서 단서를 찾아 윤 직원 영감의 인식을 적절하게 서술함.	5점
‘세상 망쳐 놀 부랑당 패’라는 단서를 썼으나, 윤 직원 영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작품 4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p. 265

- 01 ⑤ 02 ③ 03 ③ 04 예시 답안 아무리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았어도 가난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05 ③ 06 ② 07 ③ 08 예시 답안 현실과 반대되는 반어적 지명을 통해 난쟁이 가족의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9 ③ 10 ③ 11 ① 12 ⑤ 13 ① 14 ④ 15 ⑤ 16 ④ 17 ⑤ 18 예시 답안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도시 빈민층을 상징한다.

- 01 이 소설의 서술자는 ‘나’로, 큰아들 ‘영수’이다. 아버지에게 대한 사람들의 시선,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식구들의 모습 등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제시된 부분에서 공간적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제시된 부분에서 서술의 초점은 ‘나’의 시선으로 고정되어 있다.
- ③ 제시된 부분에서는 사건에 대한 인물 간의 대립된 의견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제시된 부분에서 공간적 배경은 난쟁이 가족의 집과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한정되어 있다.
- 02 아버지에게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아버지의 진면목을 모든 채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 보고 편견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3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줄인 감자가 전 부인 ‘어머니의 밥상’은 난쟁이 가족의 경제적 궁핍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철거 계고장’은 난쟁이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은 ㉡ 이전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 인해 가족이 겪게 되는 불행한 결과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서술자 ‘나’는 전쟁과 같이 치열하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전쟁에서 지기만 했다고 말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을 거듭하는 팍팍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전쟁’의 비유적 의미를 포함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전쟁’의 비유적 의미를 밝히지 못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05 ‘통장’은 동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동네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큰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치는 행위를 통해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행복동 주민들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나’가 동사무소로 가자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물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소리로 말하는 내용은 철거 계고장에 대한 항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 ⑤ 아파트 거간꾼들은 돈이 없어 아파트 입주를 못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기 위해 동사무소로 온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06 ‘철거 계고장’은 난쟁이 가족의 집을 자진 철거할 것을 독촉하는 행정 문서로서, 난쟁이 가족이 앞으로 겪게 될 불행한 상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07 어머니가 앉아 있는 ‘조각마루 끝’은 위기에 내몰린 도시 빈민의 절망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은 그 그림자가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집 마당을 덮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횡포를 상징한다.

08 ‘나’는 자기 식구들이 살고 있는 곳을 ‘지옥’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지명은 그들의 삶과는 정반대로 ‘낙원구 행복동’이다.

채점 기준	배점
지명에 담긴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단순히 반어적 표현임을 밝혔을 뿐, 지명에 담긴 의도를 서술하지 못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09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라는 내용을 통해 아버지가 평소에 책을 잘 읽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가 신체적 장애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어머니가 떼서 간직하려고 하는 알루미늄 표찰에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나’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어머니가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어 간직하려고 하는 것은 집이 철거된 이후 보상을 받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어머니가 ‘나’와 동생들을 보고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걱정을 안 했을 거다.”라고 한 말을 통해 ‘나’와 동생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이런 날’은 난쟁이 가족을 비롯한 행복동 주민들이 철거 계고장을 받은 날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날을 가리킨다.

11 어머니가 알루미늄 표찰을 떼어 간직하려고 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집이 철거되는 상황에서 이주 보조금을 받기 위한 증거물로 알루미늄 표찰을 떼어 챙겨 놓으려 했던 것이다.

12 ㉔는 입주권이 있어도 아파트에 입주할 돈이 없어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답답한 처지를 토로하는 말이다.

13 철거 계고장을 두고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각 인물들이 지닌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14 ‘기타’는 ‘나’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갔다가 영희가 기타에 관심을 보이자 라디오를 쓴 것으로 사고, 나머지 돈으로 사 준 것이다. 라디오와 기타는 각각 ‘나’와 영희의 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기타는 줄이 끊어졌다. 경제적 여유가 없기에 줄이 끊어진 채인 기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꿈이 좌절된 상태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15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읽고 현실에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시에서 이미 결정하고 아파트까지 지어 놓았으니, 주민들이 아무리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힘으로 억누를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 개발 논리와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없는 도시 빈민들의 처지를 드러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6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은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초라한 집과 대조를 이루며 우뚝 서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 하층민들을 억압하는 거대 자본 권력, 산업화의 횡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지섭은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만 지닌 사람들만 사는 땅을 ‘죽은 땅’이라고 하면서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②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지만 궁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난쟁이 가족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③ ‘달나라’는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힘들고 암울한 현실 세계를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를 가리킨다.

⑤ 높은 굴뚝에 올라가서 달나라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아버지의 행동은 비극적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7 ㉠ 이전은 과거 장면인 아버지와 지섭의 대화를 보여 주다가 ㉠을 통해 ‘나’가 아버지의 책을 보고 있는 장면으로 돌아온다. 즉 “애들아”라는 어머니의 부름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장면의 급격한 전환을 통해 극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8 ‘난쟁이’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을 상징한다. 자본과 권력이 거인과 같은 존재라면, 경제적 빈곤과 무력감을 지닌 채 살아야 하는 도시 빈민들은 ‘난쟁이’와 같은 존재라는 우화적 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난쟁이’의 상징적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난쟁이’의 상징적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하였으나,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짓지 못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소단원 평가 문제

p. 278

- 01 ③ 02 ⑤ 03 예시 답안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렸다는 점에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시련)’을 의미한다. 04 ④
05 ③ 06 ⑤ 07 ① 08 ④ 09 ④ 10 ③
11 ③ 12 ⑤

01 주인공인 주몽은 햇빛을 받아 잉태된 후 알로 태어났다. 그리고 버려진 알을 짐승들이 보호해 주었다. 이러한 기이한 출생을 통해 주인공의 신성성을 부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서 인물의 신성성을 부각하고 있다.

② 구체적인 증거물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설의 특성에 해당한다.

④ 이 작품은 건국 신화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실제 일어난 사건들만을 다룬 것은 아니다.

⑤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권선징악’의 서사를 통해 교훈성을 높이는 것은 민담의 특성에 해당한다.

02 <보기>에서는 이 작품이 주몽의 생애와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다룬 건국 신화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의 ㉠에는 주몽이 비류수 위에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정하였다는 내용만 언급되었을 뿐 나라를 세운 목적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목적을 밝혀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3 주몽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소 왕자의 무리들로부터 도망하는 과정에서 ‘엄수’에 이르게 된다. 엄수를 건너지 못하면 자신들을 뒤쫓는 기마병들에게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주몽의 입장에서 ‘엄수’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주몽이 처한 상황만을 적절하게 서술하고, ‘엄수’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지 못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 04 최 씨와 이생의 대화 장면에서 주로 최 씨의 말을 통해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압축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에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의 영웅적 활약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포함된 구성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제시된 부분에서 인물의 외양이 과장되게 묘사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제시된 부분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생과 최 씨가 상반된 인식을 보이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05 이생은 지난날을 떠올리며 최 씨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한바탕 꿈’으로 여기고 있다. ‘일장춘몽(一場春夢)’은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 ① ‘무지몽매(無知蒙昧)’는 아는 것이 없고 사리에 어두움을 뜻하는 말이다.
 ② ‘비몽사몽(非夢似夢)’은 완전히 잠이 들지도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은 어렴풋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④ ‘호접지몽(胡蝶之夢)’은 나비에 관한 꿈이라는 뜻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⑤ ‘동상이몽(同床異夢)’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 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 06 ‘짜을 잃고 외파로 날아가는 새’는 이생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생과 이별한 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최 씨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 07 이 글은 손자 종학이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윤 직원 영감이 소식의 사실 여부를 윤 주사에게 확인하는 대화와 그에 대한 윤 직원 영감과 식구들의 반응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즉 인물들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08 ‘전보’는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는 죄로 경시청에 피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줌으로써 윤 직원 영감을 절망에 빠뜨린다. 국면을 전환하여 새로운 상황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학에 대한 배신감으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윤 직원 영감의 태도와 숨죽이고 있는 식구들의 반응을 고려할 때, 종학의 안위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09 ‘화적패’와 ‘부랑당 같은 수령들’은 구한말의 상황을 가리킨다. ‘말세년 다 지내가고오’라는 말을 통해 과거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윤 직원 영감은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순사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켜 주고 있다며 일제 강점기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여기고 있다.

- 10 지섭은 난쟁이 가족이 열심히 일을 하였고,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는데 가난하게 사는 현실에 대하여 불공평하고 말한다. 이러한 부조리가 지배하는 곳은 ‘죽은 땅’이라며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11 『일만 년 후의 세계』는 아버지가 읽던 책의 제목으로, 아버지가 꿈꾸는 세계는 아주 먼 미래의 일이며, 현 사회의 문제점이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최후의 시장’은 영희의 기타를 사 온 시장의 이름으로 ‘최후’라는 말을 통해 난쟁이 가족에게 닥친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과 ㉡ 모두 인물들이 겪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은 ‘일만 년 후’라는 말을 통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먼 미래의 일임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과 ㉡ 모두 인물들이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⑤ ㉠과 ㉡ 모두 현실에 맞서 싸우려는 인물들의 의지를 상징하지 않는다.

- 12 아버지가 높은 굴뚝에 올라가 위태로운 자세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행위는 비극적 현실을 벗어나 희망을 찾으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종이비행기는 언젠가 땅으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버지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극 갈래

작품 1 통영 오광대

p. 285

- 01 ⑤ 02 ① 03 ② 04 ① 05 ④ 06 ④
07 ③ 08 예시 답안 자신들의 근본이 원래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09 ④ 10 ③ 11 ③ 12 예시 답안 양반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반성하기를 바랐다. 13 ③
14 ⑤ 15 ③ 16 도포 17 ② 18 ⑤ 19 ④
20 예시 답안 배우들이 탈을 쓰고 연기를 하여, 풍자 주체의 정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 01 가면극의 각 과장은 주제별로 독립된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각 과장은 내용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없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 02 ‘문안 아홉 가지 평안 아홉 가지 이구 십팔 열여덟 가지 문안’에서 비속어와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양반을 비하하며 조롱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문안을 잘못 받으면 ‘양반놈들 썴 썴 빼리로다’라며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양반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나열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양반들을 조롱하며 위협하고는 있지만 관객들에게 양반들의 성격과 인품을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십팔’, ‘양반놈들 썴 썴 빼리로다’와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양반들을 향한 것이지 자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⑤ 반어적 표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양반들을 부러워하는 태도 또한 드러나 있지 않다.
- 03 다른 가면극과 마찬가지로 ‘쉬-이-’는 이전에 진행되던 춤과 음악을 멈추도록 하고,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려 관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 ㄴ. 배우와 관객의 흥을 점점 고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은 춤이다.
- ㄷ. 인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려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춤이다.
- 04 ‘일배주(一杯酒)’는 한 잔의 술을 의미하며, 놀기 좋은 춘삼월을 맞이하여 양반들이 흥을 돋우어 풍류를 즐기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05 말뚝이의 대사에서 ‘내가 너의 고을에 살려고 온 지가 수십 년 되었을 제 너의 근본을 낱알이 탐정하였으니’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말뚝이가 수십 년 동안 양반들과 같은 고을에 살면서 양반들의 근본을 알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양반들의 근본을 탐정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면서 알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말뚝이의 말은 자신이 앞으로 할 말에 신뢰성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 ① 양반 근본을 들어 보자는 말뚝이의 요구에 대해 원양반은 “이놈 네가 상놈으로서 양반 근본을 알아 무엇 하랴.”라고 말하며 대답을 회피한다.
- ② “말뚝인지 쇠뚝인지 ~ 그제 말뚝아 말뚝아 불러, 이놈들-.”을 통해 말뚝이는 양반들이 자신을 함부로 부르는 것에 반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첫째 양반의 어머니는 기생이고, 둘째 양반의 어머니는 비자라는 사실을 폭로하며 근본이 천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양반들이 살고 있는 고을에 살려고 온 지가 수십 년 되었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 06 말뚝이는 양반들의 근본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이 양반 자손이라 자랑을 하지만 실상은 근본이 좋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 근거로 첫째 양반은 기생의 자식이고, 둘째 양반은 비자의 자식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 신분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 07 ①에서 굿거리 장단에 맞춰 모두 춤을 추는 것은 봄을 맞아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인물들의 흥이 고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08** 이어지는 말뚝이의 대사 중에서 “니가 근본이 원래 좋지 못한 관계로 나한테 일러 주지 않을 것은 사실이었다.”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원양반은 자신의 근본을 숨기기 위하여 대답을 회피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말뚝이의 대사를 참고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적절하게 서술함.	5점
말뚝이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씀.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 09** 가면극은 별도의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배경 묘사가 필요한 경우 배우의 대사를 통해 전달된다. ‘제2과장 풍자탈’에서는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배경 묘사를 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자요지자(自堯之子)도 불출(不出)이요 순지자(舜之子)도 불출(不出)’이라는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여 양반들을 꾸짖고 있다.
- ② ‘내 집 사랑에 종놈만도 못한 놈이 이놈 저놈 하는 소리에 아니꼽고 더럽도다. 이놈들!’에서 양반들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며 강하게 꾸짖고 있다.

- 10** 양반들은 말뚝이에게 굴욕을 당한 뒤 목숨을 빌고, 말뚝이가 이를 용서하자 기뻐하며 ‘덧배기춤’을 춘다. 양반들의 입장에서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것에 안심하고 즐거워서는 춤이라고 볼 수 있다.

- 11** 말뚝이는 양반들의 근본이 천하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자신의 근본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자신이야말로 근본이 양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자 관계가 역전되어 양반들은 말뚝이를 ‘박 생원님’이라고 부르며 살려 달라고 빌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말뚝이가 관객들에게 말을 건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말뚝이가 양반들의 언행을 따라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말뚝이는 근본으로 따지자면 자신이 천한 양반들보다 지위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 ④ 상황에 맞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말뚝이가 양반들 앞에서 굴복하는 척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양반들을 꾸짖으며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12** 말뚝이는 양반들을 용서하면서, “너의 마음 개심하여 ~ 간 데마다 가절(佳節)이다.”라며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말뚝이의 대사를 참고하여 당대 서민들의 바람을 적절하게 서술함.	5점
말뚝이의 대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씀.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 13** 비비양반은 양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저 빌어먹을 자식’, ‘썰 빠질 놈’ 등과 같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반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천박한 성품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배우들의 대사가 4음보 율격을 지녔다고 볼 수 없다. 가면극에서는 굳이 배우들의 대사에서 운율감이 느껴지도록 할 필요는 없다.
- ② 제시된 부분에서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찾아볼 수 없다.
- ④ 제시된 부분에서는 배우들이 짧은 대사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⑤ 인물의 대사뿐만 아니라 ‘비비-’ 소리와 동작을 통해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 14** 비비양반은 양반이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죽지 않기 위해 양반의 신분을 부정하고 도포를 벗겠다고 하는 등의 언행을 보여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15** 영노는 자신이 지상에 내려온 까닭은 ‘지상에 사는 양반들의 행사가 나빠서 양반들 잡아먹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노가 양반을 심판하려는 민중의 바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16** 영노는 자신이 양반이 아니라는 비비양반에게 “도포를 보니까 양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포’는 양반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비비양반은 “나 그럼 도포를 벗을란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양반의 권위와 체통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양반의 위선과 허세를 보여 준다.

- 17 ‘제3과장 영노탈’에서는 행사가 나쁜 양반들을 잡아먹으려 하늘에서 내려온 영노를 통해 양반의 횡포와 허위의식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 18 지팡이는 비비양반이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영노에 맞서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비비양반은 영노와 싸우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지팡이를 간신히 집어 들고 영노에게 쫓겨 퇴장한다.

오답 풀이

- ① ‘짖은 곳거리와 비비 하는 소리에 맞추어 춤으로 대결한다.’라는 지시문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비비양반이 영노를 ‘야 이 도둑놈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비비양반이 구렁이, 뱀, 개구리, 올챙이와 같이 영노가 자기 대신 먹을 만한 것들을 대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자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비비양반이 “야 이놈 그럼 꼭 네가 날로 잡아먹고 말래.”라고 묻자, 영노는 “먹을란다.”라고 대답한다. 거듭된 질문에도 같은 대답을 한 것을 통해서 영노가 비비양반을 꼭 잡아먹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9 영노가 ‘비비—’ 소리를 낼 때마다 비비양반은 비속어를 사용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식겁하겠다’라는 비비양반의 말을 통해서 ‘비비—’ 소리는 비비양반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 이 작품에서는 당시 지배 계층이었던 양반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가면극에서는 인물들의 특성이 잘 드러난 탈을 쓰기 때문에 배우의 모습을 감출 수 있고 풍자의 대상에만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가면극의 특성을 단서로 하여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가면극의 특성만 적절하게 서술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작품 2 원고지

p. 299

- 01 ③ 02 ③ 03 ⑤ 04 ③ 05 ④
 06 「찬란한 인생」(이라는 곡) 07 ③ 08 ② 09 ③
 10 예시 답안 개성을 잃고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교수의 상황이 삼 년 전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다. 11 ⑤ 12 ⑤
 13 ① 14 ④ 15 ③ 16 ⑤

- 01 제시된 부분에서 교수가 크게 기지개를 하며 큰 하품을 하는 모습을 다소 과장된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해학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상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설정하여 교수가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무력감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장남이 등장하여 해설자처럼 관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무대 공간을 설명해 주고 있다.
 ④ ‘철문 도어’, ‘원고지 무늬의 양복’, ‘쇠사슬’ 등과 같이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품을 활용하여 억압적 현실에 얽매어 살아가는 인물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
 ⑤ 장남과 장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하여 사실과 상반된 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가족 간의 무관심과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이 사라졌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02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를 통해 가족의 행복의 조건으로 부모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사고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를 통해 자기 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는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예로 든 것일 뿐, 자기 부모의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④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다’고 한 것은, 비록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만,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 준다.
 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라는 말을 고려할 때, 다른 집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장녀는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수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장녀의 그릇된 인식과 해석을 보여 주며 교수에 대해 무관심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교수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대사를 하는 것은 극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04 처는 피곤에 지친 교수의 허리에 ‘굵은 줄’을 감아 주며 출판사 주인을 만나는 일이 가장 급한 일임을 강조한다. 이는 돈을 버는 것을 급선무로 여기는 물질만능주의 태도를 보여 준다. 또한 ‘가벼운 음악’을 틀라는 처의 요청에 대해 장남은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을 틀다. 이는 가족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고 유대감이 사라졌음을 보여 준다.

05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 하겠어.’라는 말을 통해, 교수가 과도한 업무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정상적인 사고력을 상실한 채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6 「찬란한 인생」은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며, 판에 고장이 난 듯 되풀이되고 있다고 하였다. 교수가 원했던 ‘가벼운 음악’과 정반대되는 노래이며, 곡의 제목 또한 교수의 현재 삶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소통 단절과 유대감 상실을 부각하는 한편, 교수의 고달픈 삶을 반어적으로 보여 준다.

07 제시된 부분에서는 신문지와 시계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ㄱ). 또한 신문 기사에서 비상식적인 사건을 나열하여 부조리한 현대 사회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ㄴ).

오답 풀이

ㄴ. 이 작품의 (가)에서 조명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부모가 있는 공간과 자녀들이 있는 공간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제시된 (라)~(마)에서는 조명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의 장면을 구분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ㄷ. 이 작품에서는 인물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며,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08 ‘삼 년 전 신문’과 ‘오늘 신문’의 기사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 이를 통해 비상식적이고 부조리한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현실, 삶의 진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상을 비판하고 있다.

09 장남이 시계에 밥을 주는 행위 뒤에 이어지는 처의 대사에서 ‘밥’은 시계처럼 쉬지 말고 계속해서 노동을 할 것을 강요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0 다른 기사의 내용은 삼 년 전과 그대로이지만 출판사의 이름만 ‘착취사’에서 ‘악마사’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개성을 잃어버린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교수의 삶이 훨씬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채점 기준	배점
교수의 처지와 관련지어 강조하고자 한 바를 적절하게 서술함.	5점
교수의 처지만 언급되었을 뿐, 강조하고자 한 바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11 교수가 번역하는 일을 그만두고 대학 강의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교수가 여덟 시를 치는 시계 소리에 놀라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 것은 대학 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시간을 혼동할 만큼 강박 관념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공부’를 ‘번역’이라고 하는 말에서 처가 공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교수의 대사에서 ‘아이, 피곤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모습을 알 수 있다.

③ 한꺼번에 세 권의 책을 번역하고 있을 만큼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교수는 저녁 8시를 치는 시계 소리를 듣고 아침 8시로 착각하여 출근할 정도로 강박 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④ 처는 번역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재촉하면서 돈이 들어갈 곳을 열거하고 있다.

12 등장인물의 이름을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 명명한 이유는 등장인물이 현대인의 전형성을 보여 주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한편, 가족 간의 유대감이 상실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은 교수가 자신이 번역을 몇 개나 하고 있는지 처에게 묻는 대사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처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으로 볼 수 없다. 이 질문은 자신이 하고 있

는 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교수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 주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장남과 장녀 모두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만을 요구하며,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 중 누구도 교수의 처지에 공감하거나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15 이 작품에서는 조명을 통하여 교수와 처가 있는 공간(응접실)과 장녀와 장남이 있는 공간(플랫폼 방)을 분리하고 있다. 조명이 꺼지고 켜지는 것을 통해 관객들의 시선이 응접실에서 플랫폼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

16 장녀와 장남이 요구하는 ‘돈’을 벌기 위하여 교수는 감독관이 독촉하는 ‘원고’ 쓰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결국 ‘돈’과 ‘원고’는 모두 교수에게 가해지는 현실적인 압박과 책무를 나타내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교수의 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으며, ‘원고’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 ② ‘돈’이 장녀와 장남에게 삶의 만족감을 주는 수단인 것은 맞지만, ‘원고’가 교수에게 삶의 만족감을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교수는 ‘돈’을 벌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하고는 있지만, ‘돈’ 자체를 삶의 목표로 지향한다고 볼 만한 단서는 찾아볼 수 없다.
- ④ ‘원고’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맞지만, 교수가 원고 쓰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소단원 평가 문제

p. 313

- 01** ⑤ **02** ④ **03** ④ **04** ⑤ **05** ⑤ **06** ④
07 예시 답안 등장인물들이 이름 대신 보통 명사로 제시되어 개성이 제거되었다. 원고지 무늬의 양복과 쇠사슬 등의 소도구들이 주제를 상징하는 기능을 한다. **08** ② **09** ⑤ **10** ①

01 가면극에서는 일반적으로 관객도 극의 상황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제시된 부분 (가)~(다)에서는 이러한 관객 참여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시간적 배경과 양반들의 놀이 공간이 대사를 통해 전달되고 있을 뿐 무대 장치로 구현되어 있지 않다.

② 양반들을 대하는 말뚝이의 태도나 대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지배층인 양반에 대한 풍자가 말뚝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④ 극의 진행에 따라 중간중간 ‘굿거리장단에 맞춰 모두 춤을 춘다.’라는 내용이 있다.

02 말뚝이의 대사 속에는 ‘별유천지(別有天地)는 비인간(非人間)이로구나.’와 같이 중국 시인인 이백의 시 구절을 포함하여 어려운 한자어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 ① ‘홍문연 높은 잔치 향우장사 갈춤 출 때’는 중국의 『초한지』에 나오는 장면으로 중국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학식을 뽐내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 ② 원앙반이 ‘이놈, 말뚝아.’라며 말뚝이를 부르는 것을 통해 말뚝이를 천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이구 십팔 열여덟 가지 문안’과 ‘말뚝인지 쇠뚝인지’에서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말뚝이는 양반들을 ‘양반놈들’이라고 부르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에는 자기를 함부로 부르며 천대하는 양반들에 대한 말뚝이의 불만과 반발심이 비유와 비속어를 통해 드러나 있다.

04 극의 시작과 함께 장남이 등장하여 해설자처럼 관객에게 자신과 공간을 소개하고 있다. 장녀 또한 해설자처럼 관객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장남과 장녀가 해설자 역할을 하며 관객들에게 다른 인물에 대해 소개하거나 상황에 대해 논평을 하고 있다.
- ②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교수의 무기력한 상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할 뿐, 이를 통해 사건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장남과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하며 관객들을 향해 직접 말을 건네고 있다. 독백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장남과 장녀가 실제 상황과 정반대의 말을 하여 상황적 반어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들 간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5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장남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며 자기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장녀가 실제 상황과 반대로 교수와 처의 상황을 소개한 것은 가족 간의 무관심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지, 교수에게 연민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니다.
- ② 교수가 처의 건강을 먼저 살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장녀의 대사 중에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라는 것 또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 ③ 처의 겉모습을 ‘과거에는 살도 찼지만 ~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와 같이 묘사한 것을 통해 처도 교수와 마찬가지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처는 잠자고 있는 교수의 주머니와 가방에서 돈을 찾아내기 위해 애쓸 뿐 교수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06 ‘끔찍한 낡은 가방’은 교수가 짊어진 과도한 업무를 단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소도구라고 할 수 있다.

07 등장인물들이 고유 명사 대신 보통 명사로 지칭됨으로써 각 인물들이 지닌 개성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지 무늬의 양복이나 쇠사슬 등의 소도구들을 통해 규격화된 틀 속에서 중압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두 가지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함.	5점
한 가지 이유만을 적절하게 서술함.	3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08 (가)와 (나)는 모두 극 갈래에 해당한다. 극 갈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하거나 묘사하지 않고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 관객의 눈앞에 직접 펼쳐 보인다.

09 출판사의 이름이 ‘착취사’에서 ‘악마사’로 바뀐 것은 교수가 처한 현실이 더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0 ‘삼 년 전 신문’과 ‘오늘 신문’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 유사한 일상이 반복되는 현대 사회의 면모를 그리고 있다. 신문 기사에 대해 처와 교수의 반응이 상반되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인 사건이나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 등은 비현실적인 내용이다.

③ ‘삼 년 전 신문’을 읽을 때와 ‘오늘 신문’을 읽을 때 교수의 반응이 같은 것으로 보아 기사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기사의 내용이 삼 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라는 반응을 보인 것을 통해 처가 사회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삼 년 전 신문과 오늘 신문의 기사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을 통해 현대인의 비정상적이고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교술 갈래

작품 1 주몽설

p. 319

01 ② 02 ③ 03 ②

01 이 수필은 손과 주몽이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주몽은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성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02 주몽은 육지에서의 삶의 방식과 배 위에서의 삶의 방식을 비교하면서 배 위에서 살기 위해서는 바람이 부는 위험한 상황에 늘 대비해야 하므로 오히려 배 위에서의 삶이 육지에서의 삶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03 주몽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노래를 통해 드러내는 데, ‘빈 배’는 욕심 없는 삶을 사는 자신을 상징하며, ‘명월’은 화자가 가까이하려는 자연을 상징한다.

작품 2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

p. 325

01 ① 02 ② 03 ④ 04 ② 05 ② 06 ⑤
07 ③

01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아이가 겪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즉 사춘과 헤어지며 슬퍼하는 아이를 보며 인생에서 영원한 순간이란 없다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여 독자에게 제시한 것이다.

- 02 글쓴이의 아이는 글쓴이가 사촌들과 작별 인사를 하라고 하자 고개를 돌려 버렸다. 이는 글쓴이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슬픈 상황을 외면하려는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03 글쓴이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기쁨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우리 인생에서 한번만 경험하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 04 글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고, 숲에서 이와 관련해 배움을 얻었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글쓴이가 날마다 익혀야겠다고 여긴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관련한 내용일 것이다.
- 05 글쓴이는 숲에서 변화하는 날씨에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는 나무와 풀을 관찰한다. 그리고 이를 인간사에 적용하여 우리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06 글쓴이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잘 이해하고, 그와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07 글쓴이는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어제와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오늘 살아갈 하루의 변화를 파악하여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한 태도를 의미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p. 332

- 01 ④ 02 ③ 03 예시 답안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04 ① 05 ⑤ 06 ② 07 ①
08 ③ 09 ①

- 01 이 수필은 손과 주옹이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때 주옹은 육지에서의 삶과 물 위에서의 삶을 대비하고, 배 위에서의 삶이 육지에서의 삶보다 더 안전하다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나열을 통해 특정 인물이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피는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2 주옹이 육지가 아니라 배 위에서 사는 이유는 육지보다 배위가 더 위험하여 두려움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배위가 육지보다 평형을 잡기 어렵지만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늘 평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다.
- 03 고전 수필 ‘설’에서 ‘의미’란 작가가 얻은 교훈이나 깨달음을 의미한다. 이 수필에서 주옹의 말을 빌어 작가가 전달하려는 교훈은 바로 세상은 위험한 곳이므로 늘 조심하고 경계하며 사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 04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아이가 사촌과 헤어지며 슬퍼하는 상황을 목격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생과 세상살이의 본질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05 ‘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 인생의 진리를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글에는 글쓴이가 아이에게 외로운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06 글쓴이는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고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으로는 과거 사건을 경험하며 느꼈던 감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건의 기록은 그때의 추억을 되새길 수는 있지만 그때 느꼈던 감각은 일시적이어서 지속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 07 글쓴이는 숲에서 나무와 새 들을 관찰하며 그것들이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인간사에 적용하여 우리가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 08 글쓴이는 숲의 날씨가 수시로 달라지고, 이에 따라 숲의 나무들 모습이 달라진다는 점을 깨닫는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우리도 매 순간 달라지는 세계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쓴이는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09 글쓴이는 가장 건강한 마음이 사실은 쉽게 상처받는 마음이라는 역설적 발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마음이 여린 사람만이 누군가의 슬픔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그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01 ⑤ 02 ② 03 ⑤ 04 ② 05 ⑤ 06 ③
 07 ③ 08 ⑤ 09 예시 답안 ㉠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
 는 날을, ㉡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 10 ②
 11 ③ 12 ② 13 ⑤ 14 ② 15 ③ 16 ④
 17 ③ 18 ① 19 ③ 20 ③ 21 ③ 22 ④
 23 예시 답안 '태평천하'는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사는
 세상을 가리킨다. 24 ② 25 ④ 26 ③ 27 ②
 28 ④ 29 ② 30 ③ 31 ⑤

01 (나)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면 '유덕(有德) ㅎ신 님 여히 ㅎ와지이다'라고 노래하고 있
 다. 표면적으로는 임과 이별하겠다고 하지만, 이별의 전
 제가 되는 상황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에 반대로 절대로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반어적 표현이 (가)에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수프리야', '쫓느라져', '곳가리여' 등에서
 감탄의 뜻이 포함된 조사와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여 영
 탄적 어조를 형성하며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
 내고 있지만, (나)에는 영탄적 어조가 쓰이지 않았다.
 ② (나)는 '~ 여히 ㅎ와지이다'에서 청자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암묵적 청자를 설정하고 말을 건네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가)에
 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쓰이지 않았다.
 ③ (나)는 '유덕(有德) ㅎ신 님 여히 ㅎ와지이다'를 반복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반복적으로 쓰인 시구를 찾아볼 수 없다.
 ④ (가)에는 '쫓느라져'에서 감탄형 종결 어미만 쓰였고,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에서도
 '심고이다', '여히 ㅎ와지이다', '접두(接柱) ㅎ요이다',
 '바고이다', '노호이다' 등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만 쓰였
 고,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02 높이 솟아 눈으로도 덮을 수 없는 존재인 '자식가지'는 고
 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기파랑의 드높은 기상과 고결한
 절개를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03 (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절대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⑤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을 내세워 소망의 절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표현하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고인을 본받고자 하는 의
 지를 드러낸 시조이다.
 ② 상징법과 도치법을 사용하여 이별하는 임에게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시조이다.
 ③ 대구법과 직유법을 사용하여 정적을 회유하려는 시조
 이다.
 ④ 상징법과 자문자답의 방식을 활용하여 굳은 절개에 대
 한 의지를 노래한 시조이다.

04 <하사 2>의 초장과 중장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
 의 소박한 삶의 모습, 안분지족(安分知足)의 태도가 드러
 나 있다. 그리고 종장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
 (物我一體)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사대부로서의 권위와
 자부심을 드러낸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빗 떠라 빗 떠라'를 통해 배를 타고 나가는 장면임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자신을 '어부', '어옹'이라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ㄱ눈 눈 빠린 길 블근 곳 훑터던 ㄷ'에서 흰색과 붉은
 색의 대비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있다.
 ⑤ <춘사 1>에서는 '온갖 꽃', <하사 2>에서는 '년넝', '청약
 립', '녹사의', <춘사 1>에서는 '쥬강', <동사 10>에서는
 '눈', '설월' 등을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05 ㉠과 ㉡ 모두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자연을 가리킨다. 화자
 는 자연 속에서 지내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감을 드러
 내고 있다.

06 ㉢은 화자가 욕심 없는 갈매기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노래
 한 표현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안분지족(安分知足)의
 모습과 자연과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나타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7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와 '손바닥으
 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에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
 였으며, 자기 성찰과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
 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어순을 바꾸어 표현하는 도치의 방식은 쓰이지 않았다.

- ② 말을 건네는 방식이 아니라 독백체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앞으로의 삶의 태도를 다짐하고 있다.
- ⑤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에 설의적 표현이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 08** 화자가 ‘거울 속’에서 보게 되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은 후에 나타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3연의 ‘그 어느 즐거운 날’을 위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고독하고 슬픈 희생의 길임을 드러내면서 이를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욕된 모습이 개선되기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09** ‘밤’은 부끄러운 자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시간이면서 한편으로는 암담한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10** (가)의 화자는 끊임없는 자아 성찰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속물근성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뽕밭에 간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세 시의 화자 모두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11** (나)에서는 ‘얼마큼 작으냐’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가)에서도 부끄러움의 정서를 담고 있지만 특정 구절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 모두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자아 성찰을 위한 수단일 뿐, 누군가의 대답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니다.
- ② (가)에서 대상을 직접 호명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⑤ (가)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화자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12** ‘구리거울’은 망한 조선 왕조의 유물로, 화자는 여기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봄으로써 망국민으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모래’는 화자의 왜소한 모습을 자연물에 대비하여 자조하기 위해 활용한 소재이다.
- 13** 2연에서 화자는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지 못한 자신의 옹졸한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3연에서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옹졸함에 대해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다고 하였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지 못한 일을 화자가 소시민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 14** ⑧는 화자의 옹졸한 태도나 행위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착되어 온 것에 대한 자기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 15** 이 작품은 주몽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내력에 대해 출생부터 성장, 업적까지 기록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에서 신과 인간의 갈등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건국 신화로서 실존했던 인물인 ‘주몽’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실 그대로 서술한 것은 아니다.
- ④ 현재까지 전승되는 자연물의 유래와 관련 있는 설화는 ‘전설’이다.
- ⑤ 이 작품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직접 평가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16** 유화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삶의 내력을 금와에게 들려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유화가 귀양을 살게 된 처지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유화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부분에서 과장된 표현보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지도 않다.
- ③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유화는 자신이 하백의 딸임을 직접 밝히고 있다.
- ⑤ 유화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관용 표현을 통해 금와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청하고 있지는 않다.

17 ㉢는 주몽의 뛰어난 안목과 지혜를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경쟁자들에 의해 가혹한 시련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18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인 최 여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제의 배려로 이승에 내려와 이생과 사랑을 나눈다는 내용은 비현실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비현실적 요소가 이 작품의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현재에서 과거로 되돌아가는 시간의 역전에 의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최 여인의 말에서 요약적 서술을 통해 죽은 자신이 이승에 오게 된 사연을 전하고 있지만,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이생과 최 여인의 만남과 헤어짐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 주고 있을 뿐, 현실에서 꿈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환몽 구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⑤ 이 작품에서는 이생과 최 여인의 사랑과 이별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을 뿐, 같은 시간에 벌어진 여러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는 병치의 기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19 [A]는 여인이 이별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며 그것에서 느끼는 슬픔을 담아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다. 따라서 재회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 ㉢은 저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인과 함께 저승으로 가더라도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이생의 마음을 전하는 말이다. 여인의 목숨을 지켜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속죄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 ① 자신들의 뜻과 무관하게 만남과 이별이 반복된 과거를 언급하며, 세 번째의 만남 역시 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
- ②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 없기에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 ④ 이생은 환신한 아내와 함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여인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실려 있는 것은 여인이 이미 죽은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1 윤 직원 영감은 ‘그놈을 내가 핀지하여서, 백 년 지역을 살리라구 혈결! 백 년 지역 살리라구 혈 테여…….’라고 말하

고 있다. 종학을 경찰서에서 빼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랫동안 징역을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놈을 삼천 석 거리는 직분[分財]하여 ~ 경찰서으다가 주어 버릴걸!’이라며, 종학에게 물려주려 했던 재산을 경찰서에 주겠다고 하였다.

22 [A]에는 일제 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윤 직원 영감’의 왜곡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당시 친일 지주 계층의 부정적 면모에 대한 풍자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23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구 허는 것이여’라는 윤 직원 영감의 말을 통해, 그가 말하는 ‘태평천하’의 성격을 알 수 있다.

24 이 작품은 대체로 짧은 문장을 사용한 간결한 문체로 사건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이 작품에서는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 ③ 이 작품에서는 갈등의 양상이 첨예하게 드러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④ 이 작품에서는 내적 독백을 나열하여 인물들의 심리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이 작품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나’를 통해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일을 전달하고 있다.

25 ‘고장이 난 라디오’와 ‘줄 끊어진 기타’는 각각 ‘나’와 영희의 꿈이 좌절되었음을 암시하는 소재로, 인물이 처한 궁핍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26 지섭이 말한 ‘달나라’는 힘들고 암울한 현실 세계를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바라는 세상이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인식에서 나온 공간이다. ‘아버지의 소망이 실현될 수 없는 척박한 사회 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죽은 땅’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⑤ ‘종이비행기’는 오랜 시간 비행하지 못하고 곧 땅으로 떨어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달나라’를 지향하는 아버지의 꿈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27 극 갈래는 인물들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사 갈래와 다르게 서술자가 따로 없으며 사건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현재형으로 보여 준다.

28 ‘비비양반’은 ‘영노’가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하자, 자신은 양반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다. ‘영노’가 도포를 보니까 양반이라고 하자, 도포를 벗으려고 한다. 이를 통해 ‘비비양반’은 양반의 신분이나 체통보다 자신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29 감독관은 현실적 인물이 아닌 관념적인 인물이다.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데다 ~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라는 외양 묘사와 ‘긴 회초리’로 교수를 때리는 것을 통해 볼 때, 감독관은 교수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강압적인 힘, 교수가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0 (가)는 일반적인 상식과 통념을 뒤집는 주옹의 관점을 통해 편안함에 젖어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나)는 상처받은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고 지치는 몸이 건강한 몸이라는, 통념을 뒤집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 어찌 능히 내 마음의 홀로 편한 바를 요동하겠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깨달은 바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가)와 (나) 모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④ (가)와 (나) 모두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나)에서는 매 순간 변하는 날씨는 자연의 섭리와 이에 반응하는 자연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위태로움을 감수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보기는 어렵다.

31 ㉠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의 마음’,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세태’를 비유한 것으로,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에 해당한다. ㉡은 변하는 날씨를 가리키며 나무에 시련을 줄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한다.

4 문학과 삶

[1] 자아·타자·공동체와 문학

작품 1 수오재기

p. 355

01 ⑤ 02 ③ 03 ⑤ 04 예시 답안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라는 의미이다. 05 ⑤ 06 ⑥

01 이 작품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참된 ‘나’(본성)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기록한 한문 수필로, 자신의 경험과 그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 있을 뿐 타인의 행적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지 않다.

02 성찰을 통해 참된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 있을 뿐 대화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나)의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에서 ‘나’를 지키려는 노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② (나)에서 천하 만물과 ‘나’를 대조하여 천하 만물 가운데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에서 큰형님 집의 이름인 ‘수오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나)에서 ‘~있는가’의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고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글쓴이는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을 보고 ‘나’를 굳이 지켜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후 장기로 귀양을 간 뒤에 혼자 생각을 하면서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수오재’는 글쓴이에게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가 스스로를 잃게 된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수오재’는 ‘나’의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 ③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이지 ‘나’가 선물로 준 것은 아니다.

④ ‘나’가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대상이다.

- 04 ①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 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는 ‘나’의 특징을 표현한 것으로, 세속적 이익과 유희에 흔들려 지키기가 매우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①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①의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2점

- 05 글쓴이의 큰형님은 아버지께서 자를 태현이라고 지어 주셔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거실에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글쓴이는 큰형님이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오답 풀이

- ① 글쓴이는 어릴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다)에서 자신이 살아온 내력에 대해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다)에서 둘째 형님도 ‘나’를 잃고 남해에 와서야 ‘나’를 찾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다)에서 귀양을 와서야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물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06 <보기>의 화자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본질적 자아인 ‘나’와 대면하여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울 것이라 하였으므로 ㉠가 본질적 자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기>의 ㉡와 ㉢는 현실적 자아를, ㉣는 본질적 자아를 의미하며, 「수오재기」의 본질적 자아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작품 2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p. 363

- 01 ④ 02 ② 03 ① 04 ③ 05 ⑤ 06 ②
 07 예시 답안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인 자신이 임 씨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알면 임 씨가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08 ① 09 ⑤ 10 ④ 11 ⑤
 12 ③ 13 예시 답안 자식들에게 ‘곰국’을 먹이지 못할 만큼 임 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자식을 생각하는 임 씨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4 ⑤ 15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현대인들의 반성 촉구 16 ⑤ 17 예시 답안 임 씨는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못 받은 연탄값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없는 비 오는 날에 가는 것이다. 18 ⑤
 19 ③ 20 ⑤

- 01 이 글은 작품 밖에 존재하는 전지적 서술자가 ‘그’의 시각에서 ‘임 씨’와 관련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인 ‘그’의 시각으로 본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 서술자는 인물의 성격을 논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임 씨’에 대한 아내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내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2 ‘그’의 아내는 가난한 임 씨에게 연민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임 씨가 자신들을 속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까지 하였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노동해 왔음에도 지하실 단칸방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임 씨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것은 ‘그’이다.

오답 풀이

- ① 임 씨는 늦은 시간까지 완벽을 기하여 옥상 일을 하였다.
 ③ ‘그’는 공이가 박힌 임 씨의 열 손가락을 보며 그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고 감탄하고 있다.
 ④ ‘그’는 밤늦게까지 임 씨를 도와 공사를 해야 했고, ‘그’의 아내는 임 씨를 오해했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야 했다.
 ⑤ ‘그’의 아내는 임 씨가 보여 주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오해하였다.

- 03 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듯한 임 씨의 모습을 통해 임 씨의 성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 ㉠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이니 깨끗하게 하겠다는 임 씨의 모습을 통해 성실하고 양심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㉔ 임 씨의 일하는 솜씨가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㉕ 임 씨에 대해 ‘아내’가 오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4 ‘노모’는 원래 술 마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임 씨에게 그렇게 일하고는 안 마실 수 없겠다며 ‘그’와 임 씨가 술을 마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그’의 ‘아내’는 임 씨와 ‘그’가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술상을 보아 놓고 있었다.
- ② ‘그’의 ‘노모’는 임 씨에게 일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을 보니 앞으로 잘 살거라며 성실한 태도에 대한 칭찬과 덕담을 하고 있다.
- ④ 임 씨는 일을 마친 뒤에 여덟 시가 넘는 것을 보고 죄송하게 되었다며 일이 늦게 끝난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하고 있다.
- ⑤ ‘그’는 임 씨가 자신의 본 나이를 알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봐 알지 못하도록 아내의 대답을 가로채고 있다.

05 ‘임 씨’는 날이 저문 후에도 자신이 맡은 옥상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마무리한다. 이를 통해 책임감이 강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6 노모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면 임 씨의 노고를 칭찬한다. 이처럼 노모는 임 씨의 성실한 성격을 직접 드러내는 서사적 역할을 하고 있다.

07 나이도 어린 자신이 임 씨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임 씨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고단한 삶을 사는 임 씨에 대한 안타까움 등으로 임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으면 괴롭겠다는 기분이 든 것이다.

08 이 장면은 ‘그’와 ‘임 씨’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임 씨’의 정직하고 양심적인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09 임 씨는 ‘그’가 비용이 비싸다는 트집을 잡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는 트집을 잡아 비용을 줄이려는 것과 달리 ‘그’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임 씨는 ‘그’가 마음이 약하다고 생각해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② “받을 것 다 받은 거니까”라는 임 씨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사는가 했더니”라는 임 씨의 말을 통해, 임 씨는 토끼띠는 잘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미안해하는 ‘그’에게 임 씨는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 달라는 말을 통해, ‘그’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10 ㉔에서는 임 씨가 견적서를 수정하여 처음 제시한 비용보다 견적이 늘어날까 봐 걱정하고 있고, ㉕에서는 처음에 십팔만 원으로 받은 견적이 칠만 원으로 줄어들자 임 씨의 수고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임 씨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11 “워파매, 두 분이 어디서 그러코롬 일 차를 하셨당가요.” 등과 같은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통해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12 김 반장이 가게의 외상값부터 갚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약삭빠른 성격을 알 수 있다.

13 ㉔은 임 씨가 자식들에게 ‘곰국’ 한번 먹이지 못할 만큼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 주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임 씨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임 씨의 경제적 상황과 자식에 대한 마음 두 가지를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14 김 반장은 ‘해 뜨는 날은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아서 좋’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임 씨가 실제로 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고생하는 임 씨의 처지를 방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그’는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오느냐는 질문을 통해 궁금함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일 년 내 연탄을 대 췄더니 이놈이 연탄값을 떼어먹고 야반도주”를 했다는 임 씨의 말을 통해 일 년간 보낸 연탄에 대한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임 씨의 말을 통해 스웨터 공장 사장이 노임이 밀렸다, 부도가 났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연탄값을 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그’가 스웨터 공장 사장을 ‘빡질빡질한 상판에 배는 툭 불거져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15 부도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빚도 갚지 않고 야반도주하여 더 큰 공장을 차리고 사는 등 염치없고 이기적이어서 남을 속이거나 피해를 주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스웨터 공장 사장의 행태를 통해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현대인들을 비판하며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16 ㉠은 ‘그’가 스웨터 공장 사장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내용으로, 임 씨에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기적인 스웨터 공장 사장의 모습을 상상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부유층의 도덕적 타락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은 임 씨의 연탄값을 떼어먹은 사장의 행태를 통해 부유층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은 더 크게 공장을 차렸다는 말을 통해 돈이 없어서 임 씨의 연탄값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님을 알려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부유층의 도덕적 타락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④ ㉢, ㉣은 돈을 받으려 간 임 씨에게 연탄값을 주지 않기 위해 상황이 어려운 척하는 사장의 모습을 통해 부유층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 주고 있다.

17 임 씨는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못 받은 연탄값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비가 와서 공치는 날에 연탄값을 받으러 가리봉동에 가는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임 씨가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이유와 비가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이유를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18 ‘그’는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소.’라는 임 씨의 말에 ‘저런 것도 집 속에 끼나…….’라고 답하는데 이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수리가 필요한 허술한 자신의 집에 대해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A]는 부자가 가난한 이를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부조리한 세태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를 직설적으로 제시할 뿐, 반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리봉동’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제시해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② ‘말요’, ‘맨션아파트’를 반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지하실 방’과 ‘맨션아파트’를 대비하여 사회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보증금 백오십만 원에 월세 삼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 여섯 식구’를 통해 도시 빈민층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0 ‘양주나 찢끔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는 내용을 통해 ‘그’가 임 씨를 위로하기 위해 직접 말한 내용이 아니라 임 씨의 모습을 보며 생각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은 자신이 노력해도 현재의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한 말이지 부유한 삶이 자신에게 의미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임 씨는 ‘그’가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나아질 것이다)”이라는 말을 하자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임 씨에게 말한 ‘참고 사는 것’이 자신의 처지를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② 임 씨는 ‘그’가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나아질 것이다)”이라는 말을 하자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임 씨는 가난한 상황에서 스웨터 공장 사장에게 연탄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임 씨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 씨는 자신은 지하실 방에서 살지만 공장 사장은 맨션아파트에서 산다며 분노하고 있으므로, ㉠은 공장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임 씨가 ‘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돈 받으려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분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1 ⑤ 02 ③ 03 예시 답안 ㉔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상실한 인간과 자연물을 통해 현대 도시 문명이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1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등에서 의인화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여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광화문'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와 같은 의문형 표현을 통해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광화문'을 한자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밤까지 밝힌 빛으로 인해 항상 밝은 광화문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02 화자는 ㉔의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의 '어둠'을 휴식·충전의 시간이라는 의미,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어둠'을 병균과 같이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있다. 자연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구에 불을 밝혀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즐기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둠이 가지는 부정적 속성을 강조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㉔은 마땅히 어두워야 하는데 어두워지지 않는, 해가 진 뒤의 광화문 네거리의 상황을 보고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라고 함으로써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㉔은 꼬마전구가 켜지자 인위적인 아름다움에 순간적으로 손뼉을 칠 뻔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는 꼬마전구의 화려한 모습이 마냥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 ④ ㉔은 '이상한 광합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밤중에 빛이 꺼지지 않는 상황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㉔은 겨울이 교란당한다는 표현을 통해, 겨울이 왔음에도 겨울 같지 않은 현대 사회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03 ㉔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상실한 인간과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인공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현대 도시 문명이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채점 기준	배점
㉔에 담긴 의미와 전달하려는 바의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함.	5점
㉔에 담긴 의미와 전달하려는 바 중 어느 하나만을 적절하게 서술함.	2점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조건>의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점

대단언 평가 문제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⑤ 06 ①
07 ⑤ 08 ③ 09 ③ 10 ③ 11 ④ 12 ②
13 ④ 14 예시 답안 법규에 나온 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사체를 처리하라는 말을, 그 얘기를 차마 꺼내지 못한 것이었다. 15 ③ 16 ③ 17 예시 답안 재경이 우주가 아닌 심해로 들어가는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재경의 영향으로 누구나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01 (나)는 '나'를 지키는 일을, (다)는 '본질적 자아'를 찾고 갈구하는 결연한 의지를 제재로 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인간이 자연을 교란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나)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대립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는 밤에도 불을 밝힌 거리의 모습을 부정적 외부 상황으로 볼 수 있으나, (다)에는 부정적 외부 상황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가)는 외부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나, 외적 대상의 탐구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나)와 (다)는 모두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을 뿐 외적 대상에 대해 탐구하고 있지 않다.
- ⑤ (가)~(다) 모두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02 (가)에서는 ‘어둠도 이제 병균 같은 것일까’라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에는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다) 모두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열거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해군 장군의 동상’ 등을 의인화하고 있으나 (다)에서는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다) 모두 명령형 문장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와 (다) 모두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 03 (가)의 화자는 겨울나무들이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해가 졌는데 어두워지지 않는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감탄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손뼉을 칠 뻔 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전구에 불이 켜지는 모습이 마냥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해군 장군의 동상이 잠들지 못하는 것은 불이 켜져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밤에도 불이 켜져 있기 때문일 뿐, 잠들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 04 (나)에서 ‘나’는 조정에 나아가 12년 동안 대낮에 큰길을 뛰어다녔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큰길’은 ‘나’가 조정에서 일할 때 다녀야 했던 곳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과거가 좋게 보여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나’는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관리의 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가 관리로 있던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④, 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간 것은 ‘나’를 잘못 간직해서 잃고 결국 고향을 떠나 귀양을 가게 된 것을 의미한다.

- 05 (나)의 ‘나[품]’은 본인의 본질적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에서는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라는 표현을 통해 ‘원시의 본연한 자태’가 ‘나’의 다른 자아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장 유사한 성격의 시어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삶의 애증’은 화자가 살면서 겪는 사랑과 미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화자의 본질적 자아와는 거리가 멀다.
 ② ‘병든 나무’는 본질적 자아를 탐구하기 이전의 화자의 모습을 빗댄 표현이므로 화자의 본질적 자아와는 거리가 멀다.
 ③ ‘아라비아의 사막’은 화자가 생명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추구하는 공간이므로 화자의 본질적 자아와는 거리가 멀다.
 ④ ‘알라의 신’은 사막에서 만나는 절대적 존재로 화자의 본질적 자아와는 거리가 멀다.

- 06 (가)의 화자는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보기>의 ‘할머니’는 ‘꽃씨를 받으시’는 행위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보기>의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시는 것은 상황의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화자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온 모습을 보며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않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만 아름다운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의 화자와 <보기>의 ‘할머니’ 모두 자연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보기>의 ‘할머니’와 (가)의 화자 모두 현재 처한 현실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07 (가)는 ‘임 씨’에 대한 ‘그’의 인식이 달라지는 과정을, (나)는 ‘봉순이’의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이 달라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와 (나)는 모두 중심인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그’의 집으로만 공간이 한정되는 (가)와 달리 (나)는 중심인물이 위치하고 있는 공간이 이동하지만, 공간에 따라서 중심인물인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다.
- ③ (가)는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그’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나)는 작품 내부의 인물인 ‘나’가 경험한 것을 서술하고 있지만, (가)는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그’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08 (가)에서 ‘그’와 아내는 임 씨가 자신들을 속이려 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임 씨가 일하는 모습 및 그가 상황에 맞게 견적서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다.

09 ‘그’는 임 씨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과, 견적서가 수정되는 것을 보며 미안함을 느끼지만 임 씨가 자신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하려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 ① ‘그’는 임 씨의 손이 특별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무엇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 ② ‘그’는 임 씨의 손을 보며 그의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는 그가 고생한 만큼 경제적 대가를 얻었으면 하는 것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 ④ ‘그’는 임 씨가 견적서를 수정하여 7만 원을 청구하자, 처음엔 18만 원이었다며 다시 계산해보라고 한다. 이는 임 씨가 새로 제시한 견적서의 비용이 너무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⑤ 임 씨는 ‘그’가 계속 수정된 비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며 ‘겨울 돌아오면 우리 연탄이나 갈아’ 달라고 부탁한다. 이는 본업이 연탄장수인 임 씨가 정 미안하면 겨울에 자신에게 연탄을 주문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10 임 씨는 수정한 견적서에 대해 설명하며 재료비에 대해서는 ‘옥상에 들어간 재료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옥상 일한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 라고 말하고 있다. 즉 임 씨가 새로 제시한 견적서에 옥상 공사의 재료비는 청구되었고, 자신이 일한 품값은 청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그’의 아내가 견적서를 새로 받은 뒤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임 씨가 ‘불펜 심으로 쿡쿡 찌러 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옥상 공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와 아내는 ‘지어내 보이는 열정’이라고 생각했으나, 견적서를 다시 받게 되면서 임 씨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임 씨가 ‘칠만 원’이라고 견적서를 고쳐서 제시하는 것과, ‘처음에는 십팔만 원’이라고 했다는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11 ‘그’는 임 씨의 행동을 보고 처음에는 옥상 공사 비용을 추가하여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오히려 견적 비용을 깎아서 계산하는 임 씨의 모습에 ‘그’는 놀라움과 당혹감을 느끼며 견적 금액이 오를까 봐 전전긍긍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이미 견적의 액수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임 씨는 ‘그’가 견적서의 비용이 적다고 하는 것을 듣고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사는가’ 하는 이유로 이어서 ‘다른 집에서는 노임 한 푼이라도 더 깎아 보려고 온갖 트집을 다 잡는데’ 라고 말한다. 즉 다른 집들과 달리 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지불하려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토끼띠임에도 불구하고 잘사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토끼띠이면서도 사장님이 왜 잘사는가’ 했다는 것은 토끼띠인 사람들이 잘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임 씨는 ‘그’가 잘사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할 뿐 ‘그’가 부를 축적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 ④ 임 씨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좋다고 생각해 말한 것으로, ‘그’에게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⑤ 임 씨는 ‘그’가 토끼띠임에도 잘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의구심을 품고 있지 않다.

13 사람에게 일 년이 강아지에게 칠 년에 해당한다는 말을 앞에 한 것을 통해, ‘봉순이’는 강아지의 기준에서 칠 년도 넘게 아픈 몸으로 자신의 옆을 지켜 주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봉순이를 칠 년간 길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어머니가 전화로 오늘 밤 안에 보내 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통해 봉순이의 죽음을 어머니의 전화로 인해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는 자신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대신 봉순이가 아버지의 자리, 아들의 자리를 대신해줄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 ③ ‘나’가 봉순이를 문을 구덩이를 파는 동안 봉순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가족처럼 기르던 강아지를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⑤ ‘나’는 봉순이를 물어주고 싶다는 어머니의 전화가 내키지 않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싶어 했으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파는 구덩이가 자신의 마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심정에 변화가 생겼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14 어머니는 가족처럼 생각하고 기른 ‘봉순이’를 법규에 따라 쓰레기 봉투에 담아 치우자는 ‘나’의 비정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문장이다.

15 가윤과 서희는 재경이 사라지기 전에 남겼던 영상 메시지 등을 토대로 재경이 우주로 아닌 심해로 간 이유에 대해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서희는 재경이 우주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해 주고 있을 뿐 가윤이 우주로 향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지 않다.
- ② 가윤은 재경이 터널로 가는 우주 비행을 앞두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 ④ 서희는 재경이 여러 사람들의 기대와 증오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다. 우주 비행사로서의 만족감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 ⑤ ‘그래,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다니까. 재경의 말이 맞았다. 솔직히 목숨을 걸고 올 만큼 대단한 광경은 아니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우주의 풍경을 본 뒤에 가윤이 재경의 생각에 동의하면서도 우주로 간 자신의 선택에 만족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재경이 우주로 가지 않고 심해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재경은 그동안 자신이 제1기 터널

우주 비행사로 해온 일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재경 이모가 왜 그랬냐는 가윤의 말에 서희는 재경의 영상 메시지를 근거로 들며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해당 영상 메시지가 서희가 재경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추측하는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 ② 서희는 평소에도 잔뜩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 주면서 무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메시지를 받던 당시에 서희는 평소에 듣던 이야기라는 이유로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④ 가윤이 말한 정작 중요한 일은 터널을 통해 우주로 가는 것이다. 가윤은 재경이 우주로 가지 않고 심해로 간 것에 대해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윤은 재경이 심해로 간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재경이 정말 많은 것을 했다는 가윤의 생각은, 재경이 마지막에 우주로 가지 않았다고 해도 동양인 비혼모 우주 비행사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17 재경이 우주 비행사로서 터널로 가는 우주 비행의 임무를 저버리고 심해로 들어가는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재경의 영향으로 누구나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채점 기준	배점
‘다른 선택’의 의미와, 재경의 영향을 받아 누구나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서술함.	5점
‘다른 선택’의 의미만 서술함.	3점